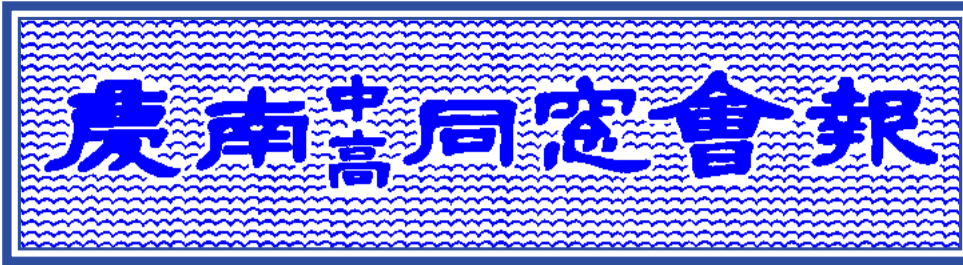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



발행·편집인 이종휘
편집주간 최재혁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8(부평동4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5층
Tel. (051)253-7788 Fax. (051)255-7787
제작·인쇄 사인텔 Tel. (051)245-2337

베이스볼센타 건립 이어 훈련에 필요한 시설보수공사 - 장비구매 끝내 경고야구 재도약의 발판 구축



총동창회 및 야구후원회 관계자들이 경남고 야구부에 피칭머신기를 전달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동창회와 야구후원회 및 모교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동문들은 모교에 베이스볼센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야구부의 훈련시설 및 보유 장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사용가능한 동창회 예산을 최대한 동원하고, 여기에 허부남(37회) 동문을 주축으로 뜻있는 동문들의 마음을 보태어 75일에 걸친 시설보수공사와 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야구부 훈련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외면하고 좋은 성적만을 기대하는 것은 남부끄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더 알뜰하게 챙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위 보수공사와 장비구매는 외부 업체에게 맡기지 않고 많은 동문들이 시간과 각자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원가수준에서 집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보수공사는 홈플레이트 뒤쪽에서

양쪽 덕아웃에 이어지는 부분에 잔디를 모두 걷어내고 배수관로를 다시 묻는 배수공사부터 시행되었다. 위 공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여 비가 내리면 장시간 젖어 있는 상태로 비가 그치더라도 즉시 훈련을 재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 공사와 더불어 투수 마운드와 1, 2, 3루 베이스 쪽에 흙을 보완하고(44회 안병규 동문 협조) 흙을 덮을 대형 방수포를 여러 장

구매하였으며, 그라운드 고압 세척장비(41회 황정후 동문 개인 기증)도 구매하였다. 위 공사를 시행함으로 현재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비가 그치는 즉시 훈련이 가능한 상태다.

1루와 우익수쪽의 나뭇가지가 조명을 가려 야간 훈련 시 운동장을 어둡게 하고 1루쪽 나뭇가지는 우익수의 시야를 가리거나 타격된 볼의 방향을 굴절시켜 그 아래에 대기중인 선수들

<기사 2면 넘김>

용마장학회 올해 마지막 장학금 4,100만원 제3차 이사회 지급 결의



용마장학회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는 장면 촬영

11월 20일(월) 저녁 6시 30분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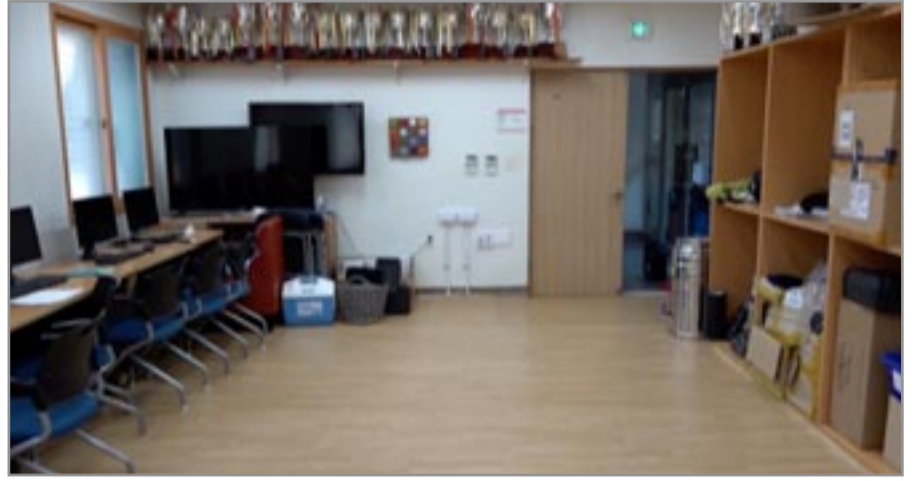
2023년도 마지막 장학금 총 4천1백만원(내역; 경남고 : 재학생장학금 2천1백만원, 야구부 동계훈련비 1천만원, 경남중 : 야구부 동계훈련비 1천만원)을 지급기로 결의하고 11월 28일(화) 전달하기로 하였다<관련기사 3면>. 하반기 주요 추진사

항 전달과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사회를 마치고 1층 낭만코다리 집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이병찬 이사는 용마장학회가 2023년도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사진에게 감사하였고 신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이고도 활기찬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석자 : 이병찬(23회) 이사장, 장혁표(8회) 이사, 옥동훈(25회) 상임이사, 임태영(40회) 이사, 서민석(30회) 감사, 류명석(31회) 감사, 예동해(32회) 간사

공사사진



<1면 기사받음>

에게 부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안병규(44회) 동문의 협조를 받아 며칠에 걸쳐 고공크레인을 동원하여 가지치기공사를 시행하였다.

기존의 실내연습장은 지붕만 있고 벽면이 없는 상태로 악천후에는 연습이 불가능 했다. 출입문과 창이 있는 벽면을 보완하고 실내에 냉·난방시설을 보완(59회 김성수 동문 협조)함으로써 악천후에도 훈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여기에 조작이 편리한 신형 피칭머신기와 불자동공급기까

지 도입(야구후원회 기증)되어 혼자서라도 언제든지 훈련할 수 있는 상태다. 특히 피칭머신기와 불자동공급기는 기존의 시중 제품에 기술과 기능을 보완하는 작업을 수차례 거쳐 제작한 것으로 국내 유일의 제품이라 할 것이다.

고장난 기숙사 난방시설을 전기판넬로 전부 교체하고 실내 조명도 밝게 보수하였다.

홈쪽 더그아웃 2층에 라커룸을 설치하였다. 기숙사 공간에 수용인원이 40명 정도인데 야구부원은 60명 수

준이다. 그동안 1학년이 라커룸을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고 한다. 라커룸 내에는 개인 라커와 냉·난방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훈련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시계가 필요하여 베이스볼센터 옆에 대형시계를 설치했으며(32회 이종희 총동창회장 개인 기증), 운동장 벽면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도색하였다. 김성수(45회) 동문은 미국 현지 출장중에 스피드건 2대를 구매하여 기증하기도 했다.

베이스볼센터내부에는 선수들을

관리하고 외부인사들을 제대로 영접하기 위한 대형 전자질판 모니터 등 각종 시설과 비품을 구매하였다.

위에 열거한 공사 외에도 양호진(36회) 동문 등의 협조로 여러 공사가 시행되었으며 시설관리업체와 연간 1천만 원 상당의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수공사를 일 단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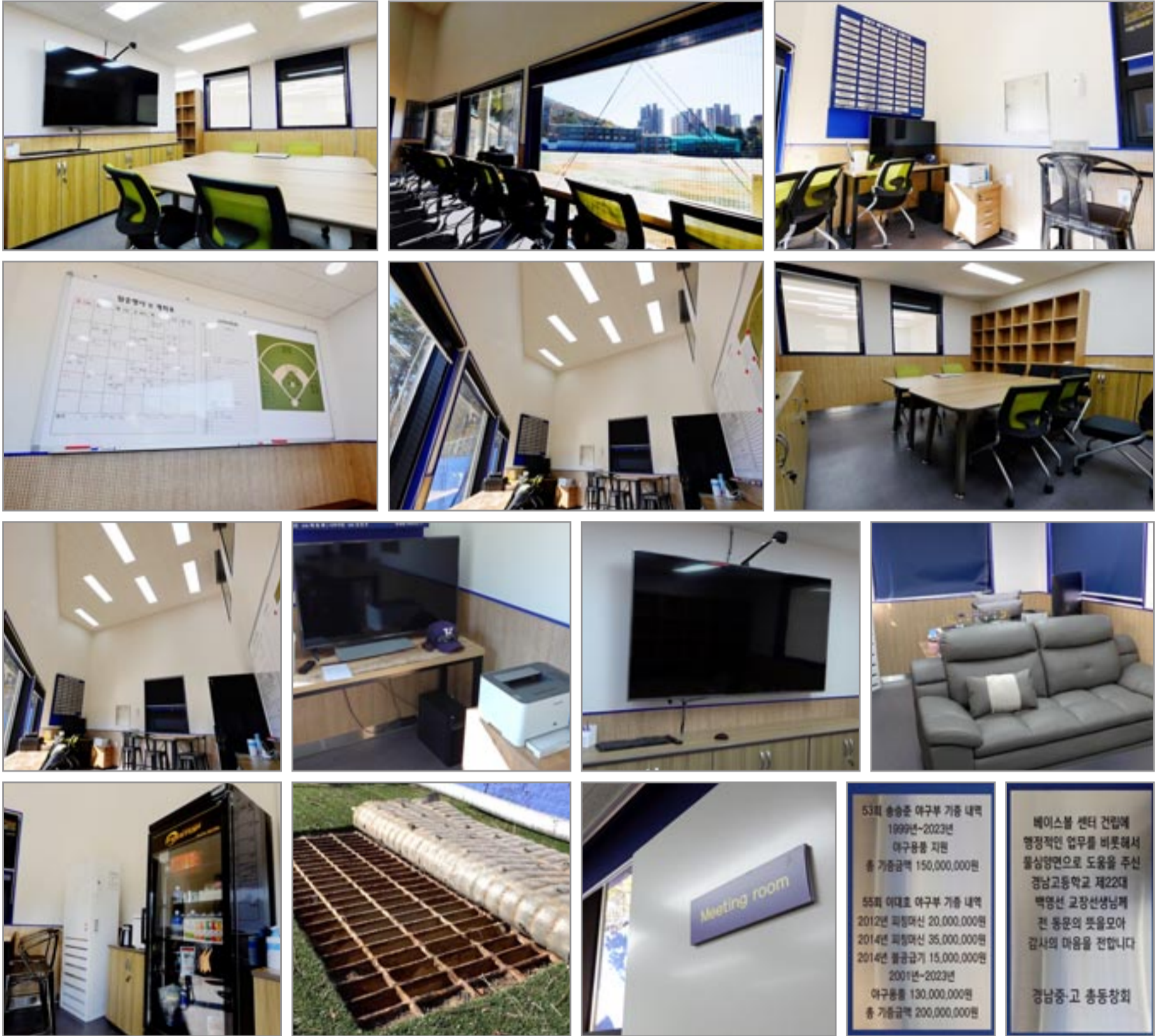
이번에 시행된 공사는 이를 집행한 동문들은 물론이고 공사 전과정을 지켜본 야구부원들과 학교관계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공사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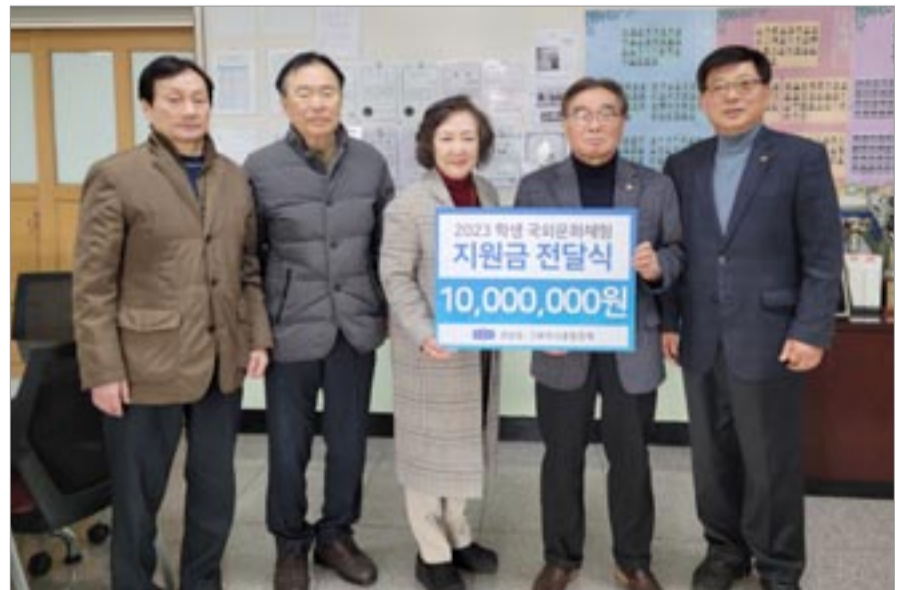
(비용지출일자를 기준으로 기재함, 지출관계는 정기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관계 서류는 총동창회에 비치되어 있음)

시행일자	내역	비고(구입처)	시행일자	내역	비고(구입처)
6. 12.	센터 내 테이블 12개 주문제작, 의자, 책장, 옷장, 쇼파, 파티션	레이디가구	9. 4.	특대바구니 2개 구입	(주)쿠팡
6. 12.	냉난방기, 스탠드, TV, 대형스크린 전자칠판 등 전자제품, 부대 설치비	(주)에이케이텍	9. 6.	펜스 등 도색	대왕도장
7. 3.	건립기금 내·외부 스텐판 제작	(주)대경커뮤니케이션	9. 7.	암막 블라인더 추가 구입	월성상사
8. 16.	선스크린 공사	월성상사	9. 8.	통신전기공사	에스조명
8. 16.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금속) 추가공사	더블에스컴퍼니	9. 11.	싱크대 설치	동원주방기물
8. 28.	벽면 인테리어 필름 추가 시트작업	(주)대경커뮤니케이션	9. 11.	싱크대 엑셀파이프 설치	수정철물
8. 28.	수납장 12개 설치	레이디가구	9. 11.	기록실 앞 미장공사	웅동철물설비
8. 28.	컬러레이저프린터 2대 설치	(주)동우비즈니스솔루션	9. 11.	인조잔디 철거 및 폐기물처리	(주)청담아이앤씨
8. 28.	커피포트, 제빙기, 청소기 구입	더블에스컴퍼니	9. 11.	홈플레이트 철거, 배수로 공사 및 인조잔디 설치	승원조경건설(주)
8. 28.	센터도어록 3대 설치	삼익열쇠	9. 18.	스테인리스판, 자석보드 등 제작	(주)대경커뮤니케이션
8. 28.	AI방충문, PJ빔물막이 추가 설치	(주)원지엠	9. 18.	디지털 전자키 등 설치	삼익열쇠
8. 30.	서랍장 1개 추가 설치	레이디가구	9. 20.	센터 내 인테리어 공사	(주)다함건설
8. 30.	야구부 감독 명패 제작	삼영사	9. 20.	야구장 베이스 천막 덮개	오성기업
8. 30.	소화기 4대 구입	더블에스컴퍼니	9. 20.	카트 7대 구입	(주)쿠팡
8. 31.	TV 및 전자칠판 구입	더블에스컴퍼니	9. 25.	스텐판, 자석보드 추가 제작	(주)대경커뮤니케이션
8. 31.	인테리어 필름 작업	(주)대경커뮤니케이션	10. 11.	야구부 사물함 아크릴가공 설치	(주)대경커뮤니케이션
9. 1.	제반 전기공사(전선관 정리, 조명 수리)	에스조명	11. 7.	실내연습장 공사	(주)다함건설
9. 4.	준공청소	(주)청담아이앤씨			

총동창회, 용마장학회



경남고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중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면 기사받음>

11월 28일(화) 경남중·고등학교에서 이병찬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등의 전달식을 가졌다.

경남중에는 우수학생 국의 문화체육을 위한 시급한 경비 1천만원이 우

선 집행되었으며, 당초 지급 결의하였던 야구부 동계훈련비 1천만원은 내년 1월 초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경남고에는 장학금 2천1백만원과 야구부 동계훈련비 1천만원 총 3천1백만원이 전달되었다.

기별야구대회, 용마당구대회

제53회 총동창회장배 기별야구대회 결산

33회 10번째 우승의 금자탑을 쌓는다.



기별야구대회에서 장년부 우승을 한 33회 선수단



청년부 우승을 한 54회 선수단

지난 10월 7일(토) 대장정에 들어간 기별야구대회가 10월 21일(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3개팀이 참여하였으며 경미화와 청마회의 이벤트 경기도 있었다. 33회가 올해로

써 총 10회 우승의 금자탑을 세웠다. 47회는 지난해에 이어 8회 우승에 도전하였으나 신에 52회와 54회에 자리를 내어 주었다. 올해 시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시상내역	장년부	청년부
우승	33회	54회
준우승	38회	52회
감독상	백홍문(33회)	김영빈(54회)
최우수선수상(MVP)	박근보(33회)	김낙원(54회)
최우수투수상	김종욱(33회)	남준현(54회)
감투상	차정호(38회)	강재식(52회)
타격 1위	김태성(38회)	정현철(52회)
타격 2위	이수관(38회)	정채민(54회)
타격 3위	박기엽(40회)	정길수(52회)



장년부 우승기 및 트로피 전달



청년부 우승기 및 트로피 전달

제9회 총동창회장기 쟁탈 용마당구대회(단체전)



용마당구대회 우승 36회



용마당구대회 준우승 34회

제9회를 맞이한 용마당구대회는 11월 18일(토) 매년 치루어 온 부평동 소재 다빈치 당구장에서 개최되었다.

부산에서 이례적으로 11월중 첫눈이 내린 추운 날씨에 아침 8시 30분까지 집합하여 대회가 진행되었다.

시합을 치루기 전 용마당구회 장세훈(25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소를 불문하고 동등하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가 당구일 것이라며 참가해준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이어 출장 중인 이종휘(32회) 총동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예동해(32회) 사무총장의 축사, 김옥권(25회) 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조광제(28회) 경기위원장의 경기규칙 설명 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개회식 후 대망의 우승기를 향

하여 시합이 진행되었다.

총 15개 기수 23팀이 참가하였는데 35회, 44회 기수가 처음 참가하였으며, 23회부터 50회까지 많은 기수가 관심을 가져 주었다.

팀들의 상향 평준화로 모든 게임이 박빙의 치열한 승부로 치러졌다. 36회(C)팀이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34회(A)팀이 준우승, 25회(A)팀이 3위,

33회(A)팀이 4위에 입상하였다. 24회팀 패자전우승, 50회팀이 패자전준우승을 차지하였고, 문치호(34회) 동문이 하이런상을 수상하였다.

대회 후 60여 명의 동문에게 경품추첨 선물이 주어졌으며 마지막으로 교가제창 후 대회가 종료되었다.

◇찬조 : 장세훈(25회) 회장 100만원, 김영화(29회) 수석부회장 100만원(상품권), 노상우 고문(24회) 50만원, 총동창회 50만원,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 30만원,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 50만원, 박세철 50만원, 강용주 30만원, 오양득 20만원, 윤태석 10만원, 이신화 25회 당구회장 10만원, 한봉재(이상 25회) 10만원, 25회 동기회 30만원, 청죽회(영도도서관동문) 20만원, 25회 쌍백회 20만원, 25회 당구회 10만원, 26회 당구회 20만원, 백현성(35회·㈜동흥대표) 막걸리잔 300개, 구효진(41회·우리은행 서울서부 본부장) 100만원 상당 선물세트

제57회 동기회 졸업 20주년

불혹의 아름다운 출정식



홈커밍데이 행사 57회 동기들 단체사진



내빈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57회 동기회는 지난 11월 11일(토)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행사를 개최하였다. 가족 포함 60여명의 동기들은 오후 2시 코모도호텔에 집결한 뒤 2시 45분 경 모교를 방문하였고 4시 15분 경에 총동창회관을 방문하였으며 6시경 다시 코모도호텔로 돌아와 내빈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하였다.

만찬은 식사를 먼저하고, 김경진(44회) 동문의 사회로 롯데치얼스의 축하공연, 내빈 소개, 모교 총동창회 야구부 발전기금 전달, 동기회장 대회사, 내빈들의 축사, 행운권추첨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재영 동기회장은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많은 선배님들을 알게 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기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경험은 엄청난 행운이었다고 했다. 또한, 57회 동기들의 만남이 현재 4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찬란한 옥과 같이 빛나고 단단한 쇠와 같이 뜨거워질 동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행사가 동기들의 인생에 대단원의 막을 올리는 아름다운 출정식이 되자고 하였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은 격려사에서 행사를 준비한 57회 동기회 집행부의 노고와 행사를 후원한 선배기수들의 협조를 먼저 치하하였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다는 ‘인생 3무’에 초점을 맞추어 살다보면 어느덧 각자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삶에 대한 조언을 하였다. 또한, 미래를 보고 나아가되 ‘앞만 보고 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수시로 옆을 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 줄 것도 당부하였다. 동기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곳에 삶을 논할 수 있는 선배가 있고 후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삶의 폭을 넓게 가질 것도 당부하면서 동문회의

울타리를 가지있게 누리도록 총동창회 산하조직인 K-청마회에 가입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박종기(28회) 중부산지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도전, 열정, 공헌하는 동기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덕형관 앞에서 단체사진

정 신(47회) 경야회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40대에 들어서는 동기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57회 동기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57회 동기들의 파이팅을 주문하였다.

백영선 교장은 교감을 포함하여 경남고에 6년간이나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였고, 교문을 들어설 때 마주하는 ‘자랑스런 경고인’이란 문구와 관련하여 재학생들에게 훌륭한 선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스스로 자랑스런 경고인이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하였다.

57회동기들이 재학 당시 가르침을 준 선생님이 3분 참석하였는데 그 중 격려사에 나선 강동원(16회 동문)선생님은 후배들에게 회초리를 많이 들었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절대 없었다고 하면서 훌륭하게 성장한 57회 동기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경품추첨이 있었으며 호텔에서의 행사는 8시 30분경 종료하였고, 이어 동기들은 시내 주점으로 이동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어울려 우의를 다졌다.

◇참석자 : △내빈 - 박종찬(25회) 박종기(28회) 최재혁(36회) 허부남(37회) 김경곤(38회) 한수열(40회) 김영휘 이진배(이상 43회) 김경진 안병규(이상44회) 조청래(45회) 정민호 정 신(이상 47회) 정유석(51회) 김지운 정상중(이상 52회) 김문건(53회) 고지현 임길환 조종완(이상 54회) 강문성 이동주 장지훈 황시우(이상 55회) 장재환 강지훈+1 오신욱 이승민 임준희+1 임동섭 천두만(이상 56회) 김동욱 서명기(이상 58회) 김성수 이희동(이상 59회) 전명재(67회) 백영선 경남고 교장, 전광열(44회·경남고 야구부감독) △경남고 은사님 - 강동원(16회) 강석원 김구화(25회) 배재국 △57회- 안재영(동기회장)+3 조상원(사무국장)+2 곽민준(재무국장) 조진욱(재경회장) 정구윤(재경총무) 안상배(감사) 고광희 고석빈 공종오+2 김경민 김동우 김성길+1 김상훈 김성현 김재겸 김주민 서현주 문정학 민훈식+2 박정준 박정호 박태원 원우진+2 유종민 이선혁+3 이영광 장병학 장현수 차철흔 황경현+2 황준원

◇현금찬조 : 총동창회 100만원, 박종찬(25회) 50만원, 박종기(28회) 20만원, 김대욱(29회) 50만원, 이종희(32회) 100만원, 이 창(36회) 50만원, 허부남(37회) 200만원, 우영환 50만원, 임태영(이상 40회) 10만원, 최영준(41회) 50만원, 김대영(43회) 50만원, 김상수(45회) 50만원, 이재광(46회) 50만원, 정 신(47회) 200만원, 백광선(50회) 10만원, 정유석(51회) 100만원, 김민철 50만원, 김지운 50만원, 정상중(이상 52회) 10만원, 김문건(53회) 20만원, 고지현 10만원, 조종완(이상 54회) 50만원, 이동주(55회) 30만원, 덕경회 50만원, 용마골프회 50만원, 덕형리그 50만원, 경미회 100만원, K-청마회 100만원, 사하지구 20만원, 남부산지구 50만원, 37회 동기회 100만원, 51회 동기회 50만원, 52회 동기회 30만원, 53회 동기회 30만원, 54회 동기회 30만원, 55회 동기회 50만원, 56회 동기회 100만원

◇물품찬조 : 박극제(24회) 손질고등어 5세트(50만원 상당), 박종찬(25회) 내장고 2대 + 드림세탁기 1대(200만원 상당), 허부남(37회) 쇼핑백200장 + 볼펜120자루 + 경남중고 로고야구공(아크릴케이스)12세트 + 가죽카드지갑 5개(200만원 상당), 백기현(39회) 초량어묵세트 5박스(50만원 상당), 강병규(43회) 생탁 막걸리3병+옛날술잔2개 20세트(50만원 상당), 구자삼 메로구이선물세트 5박스(50만원 상당), 권우일 현수막2개 + 배너2세트 + 팜플렛200부 + 스티커 120개 제작지원(50만원 상당), 조태성(이상 45회) 오징어선물세트 5박스(50만원 상당), 장재환(56회) 텀블러 30개(100만원 상당)



동창회관 앞에서

기부자 리스트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1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29	김대욱	5억3500만원			3300만원	

루비		3억원이상		1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25	박종찬	2억6140만원			4250만원	

사파이어		2억원이상		0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에메랄드		1억원이상		7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11	오완수	1억원				
2	23	김영기	1억2300만원				
3	25	김진철	1억1500만원				
4	30	최우철	1억1200만원				
5	33	박명진	1억400만원				
6	37	허부남	5750만원			4340만원	
7	54	하병호				1억원	

플래티늄		5천만원이상		14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13	이경재	5100만원				
2	16	송규정	5700만원			100만원	
3	17	최만식	5000만원				
4	18	김길제	5200만원				
5	19	이부성	5000만원				
6	22	유재진	6625만원			1000만원	
7	24	박홍규	5000만원				
8	24	전용우	5000만원				
9	26	박상호	6750만원			100만원	
10	30	김현태	5470만원				
11	30	윤성덕	6450만원				
12	32	이종휘	2310만원			6200만원	
13	38	권두성	7350만원				
14	40	우영환	4100만원			1000만원	

골드		3천만원이상		20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9	조동훈(미)	3056만원			100만원	
2	15	김경일	4000만원				
3	16	엄종원	3000만원				
4	19	이용흥	4150만원				
5	20	박용덕	3320만원				
6	21	손석보(미)	3064만원				
7	23	김중광	3100만원				
8	25	서병수	3000만원				
9	27	박치호	4000만원				
10	28	백영호	3350만원			1000만원	
11	29	박성철	3500만원				
12	31	박종호	3550만원			100만원	
13	31	홍성수	3370만원				
14	33	김법영	4430만원				
15	35	장인화	3400만원			100만원	
16	36	박진용	3250만원				
17	38	정재형	3140만원				
18	39	박근태	3270만원			100만원	
19	44	탁정환	3530만원			240만원	
20	47	정신	3690만원			118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31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3	송두호	1000만원				
2	8	박동렬	1000만원				
3	10	조양제	1000만원				
4	12	남기용	1000만원				
5	12	이재원	1000만원				
6	15	손부홍	1630만원			20만원	
7	15	천신일	2430만원				
8	15	한해수	1000만원				
9	17	이세복	1000만원				
10	17	최성호	1000만원				
11	19	황태원	1000만원				
12	20	김형오	100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31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3	20	박병철	500만원			1000만원	
14	20	허규판	1000만원				
15	21	강창수	1730만원				
16	21	전재호	1000만원				
17	22	김학균	1000만원				
18	22	박재상	2000만원				
19	22	장성덕	1000만원				
20	22	장성복	1000만원				
21	22	허범도	1000만원				
22	25	김익수	950만원			50만원	
23	28	노영현	1500만원				
24	30	정경목	1000만원				
25	33	이순환	1000만원				
26	33	최웅남	2260만원			400만원	
27	34	박철용	1070만원				
28	34	이진호	2130만원				
29	41	이양걸	1000만원				
30	41	최영준	540만원			520만원	
31	55	전민기	800만원			20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5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7	김삼현	500만원				
2	8	김봉길	500만원				
3	17	김동수	500만원				
4	17	윤성욱	500만원				
5	17	조종언	500만원				
6	19	김봉호	600만원				
7	19	장홍의	600만원				
8	20	김태영	500만원				
9	23	이병찬	550만원				
10	23	이상수	770만원				
11	24	노상우	400만원			100만원	
12	25	박세철	630만원				
13	25	손기천	55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5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4	25	송정규	580만원				
15	25	이명철	710만원				
16	26	김상현	500만원				
17	26	박재욱	500만원				
18	26	박효대	500만원				
19	26	하원규	500만원				
20	27	김태우	550만원				
21	27	문두찬	630만원				
22	28	구영소	500만원				
23	28	이원철	950만원				
24	28	임익성				500만원	
25	28	최강호	500만원				
26	29	이석호	600만원				
27	30	김해곤	700만원				
28	30	윤인태	630만원				
29	30	이명건	530만원			50만원	
30	30	이학수	700만원				
31	30	허정택(미)	615만원				
32	31	남기태	710만원				
33	31	류명석	780만원				
34	31	오민일	650만원				
35	31	이병태	650만원				
36	31	정철수	510만원				
37	34	이재완	550만원				
38	36	양호진	20만원			620만원	
39	39	백기현	890만원				
40	41	김정태	510만원				
41	44	안병규	780만원			100만원	
42	45	김상수	360만원			150만원	
43	45	조태성	500만원			40만원	
44	52	김민철	250만원			250만원	
45	64	표종빈	500만원				

<2023년 11월30일 기준>



모교 및 총동창회 사랑기금 기부자 참여 현황

(단위: 만원)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단체			
5회	5	상기중	250	28회	6	백영호	1,100	38회	1	한민득	200	47회	38	김하윤	10	50회	1	정재우	100	강서지구동창회	200
		김영한				엄재홍	100			박근태	100			김현우	10			강영철	10	경미회	1,860
		김병무				이원철	50			박종국	10			배민호	10			김민철	300	경미회 대외협력분과	30
		진도영				임익성	500			백기현	50			백상화	10			김상곤	10	경미회 문화체육분과	30
		임성업				임재덕	50			윤원욱	100			서정민	10			김현진	10	경미회 미래발전분과	80
6회	1	오영은	100			한명재	100			정순환	100			설진석	10			김문건	30	경미회 사회공헌분과	150
7회	1	김삼현	500			김대욱	47,000			우영환	1,000			손호준	10			고지현	10	경미회 친목교류분과	30
9회	1	조동훈	100			김영찬	100			한수열	100			송창은	10			김영빈	10	경야회	550
12회	3	배중섭	30			김종명	100			김영철	100			신준	10			임길환	10	김해지역동창회	200
		이재원	1,000			이문열	200			김인수	100			옥재봉	10			정준섭	30	남부산지구동창회	350
		조한기	3			이선호	100			김정태	410			윤석희	10			조중완	100	담정회	500
13회	1	김성훈	10			차의수	100			이양걸	200			윤정	10			하병호	10,000	대구지역동창회	100
		손부홍	100			현응열	100			최영준	910			윤태균	10			이욱한	10	덕경회	500
15회	3	윤상준	100			한창희	50			한창희	50			윤필호	10			전민기	1,000	덕형리그	800
		이승준	100			정용중	30			정용중	30			이기문	10			류은재	20	동래금정지구동창회	200
17회	2	이수																			

동창회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

강서지구동창회의 연이은 가족어울림행사

강서지구동창회는 11월 5일(일) 14명의 동문이 참가하여 경남고교정에서 출발하여 엄광산을 거쳐 꽃동네까지 산행하는 모교방문 및 가족어울림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 초 실시한 회동유원지 가족동반 걷기대회에 이어 가족동반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남고 교정에 10시에 집결하여 교정을 둘러보고 경남고 돌담길을 지나 2시간여 동안 돌레길 산행을 하고 꽃동네 식당 '예천집'(36회 이상준 동문 운영)에 도착, 식사를 하고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시간여의 산행에서 일부 희망자는 정상을 밟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엄광산(501m) 산행을 진행해 무사히 정상을 밟고 오히려 본대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하는 투혼(!!)을 보여주었다. (엄광산 산행 : 이수관 동문부인, 김성준 동문부부, 이진행 동문)

이번 산행은 참가자는 적었지만 에피소드가 많았다.

최우영(51회) 동문이 부인과 자녀 정원양(7세)이 참석하여 최다참가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이날 정원

양은 율동과 댄스를 선보여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구민수(50회) 동문은 전날 지인과 모임에서 새벽까지의 과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 참가를 위해 불과 2시간만 자고 참가하기도 했다.

산행 중간에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 산행길에 독사가 나왔다는 괴담(?)을 전달하고 사라져 참석자들은 산행 내내 바닥을 주시하며 걷기도 했고, 참가자중 최고령(?)이신 최주홍(31회) 산행대장은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여 코스설명, 산행인솔, 각종 사진촬영 등 놀라운 체력을 보여주며 우수산행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참석자 : 최주홍(31회) 부부, 김창범 부부, 이병훈(이상 32회) 이수관(38회) 부부, 김성준(44회) 부부, 이진행(46회) 구민수(50회) 최우영(51회) 부부+자녀1

◇찬조 : 백영호(28회) 건강드링크 100병, 이병훈(32회) 스타벅스 10만원상품권, 김재성(35회) 금강제화 10만원상품권, 김성준(44회) 탐마트365 10만원상품권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행사에 앞서 모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지역동창회 용마의 밤



지난 12월 5일(화)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창원지역동창회 용마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12월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60여 명의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과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행사개최를 축하해 주었다.

특히 창원지역동창회장 기수인 30회 동문 14명이 참석하여 다른 기수들의 부러움을 샀다.

1부는 김해근(30회) 동창회장 인사말과 이종휘 총동창회장의 축사, 이수창(17회) 창원지역동창회 고문의 격려사로 진행되었다.

2부 행사에서 가야금연주, 김우홍(22회) 동문의 색소폰연주와 행운상 추첨 등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행운대상의 골드바(금 한돈)는 조명제(30회) 동문에게 돌아갔다.

중부산지구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진성회원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이 1부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월 12일(목) 저녁 6시 30분부터 총동창회관 6층 강당과 1층 식당에서 중부산지구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 임무홍(25회) 본회 고문, 이영학(26회) 본회 고문, 5개 지구동창회장 등 총 40명에 이르는 축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1,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종오(36회) 이사는 2013년 9월 25

일 자갈치 「오아제씨푸드부페」에서 2백30여 명이 모여 중부산동창회가 창립된 이래 임철호(24회) 임무홍 이영학 前회장이 조직의 발전을 견인해 온 10년의 발자취를 준비된 영상을 통해 보고했고, 창립 이후 본회의 성장에 기여한 유공 동문으로서 김종오, 박이현(38회), 김형준(44회), 육한수(46회) 회원에 대하여 감사장 및 상품권이 증정되었다.

제4대 회장인 박종기(28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조직은 활동하는 진짜 회원이 필요하다. 활동하지 않거나 년회비가 납부되지 않은 밴드 가입자는 금년말에 명단을 지울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1백명의 진성 회원을 확보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휘 총동창회장과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은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며 중부산지

구동창회가 지구동창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했다.

1부 의전행사를 마치고 1층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2부 행사로서 케이크 절단, 건배 제의, 만찬, 행운권 추첨 등과 함께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밤 8시 30분경 모든 행사를 마쳤다.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동문에게는 부산생탁세트, 돌 떡, 기념 타월이 선물로 증정됐다.

조직활성화에 시동 건 중부산지구

더욱 끈끈해지는 번개 모임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직활성화에 시동을 건 중부산지구동창회(회장 박종기 28회)가 11월에도 모임을 이어갔다.

11월 14일(화) 저녁 7시, 영도 남향동 소재 「현미해물천국」 식당에서 번개모임을 가졌는데, 영도지구에서 중부산지구 모임을 가진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20회부터 54회 후배에 이르기까지 모두 29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영도 거주 회원들의 열렬한 참

석이 눈에 띄었다.

박종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차후 모임은 본 회의 4개 구역(서구 중구 영도구 동구)을 돌아가며 가능한 한 동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가질 계획임을 밝히며, 연말까지 “년회비를 최대한 납부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했다.

건배를 제의 받은 강부덕(20회) 동문은 “영아일랜드(Young Island = 영

도) 화이팅”으로 건배사를 제창했다.

28회가 5명, 36회가 5명씩 다수 참석을 했으며, 특히 32회는 예동해 총동창회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9명이 대거 참석해 단결력을 과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철(32회) 부회장은 서울에서 출장 온 최영훈(32회·아시아공동체학교 이사장) 동기를 소개했고, 최 동기가 중영도구 총선출마에 뜻이 있음을 알렸다.

김종오(36회) 이사는 창립 이후 본회의 성장 과정을 찬찬히 설명했으며, 부산의대 정형외과 동문회장이 된 최영준(41회·해동병원 정형외과 원장) 부회장은 “회원들께서 모처럼 영도에 와 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준비한 찬조금을 전했다. 이창용(44회) 회원도 언제나처럼 “중부산지구 동창회를 사랑한다”며 선뜻 찬조금을 전해왔다.

선후배 회원들은 생굴/호래기 회,

아구찜과 해물탕을 즐기면서 그동안의 안부 및 정담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나누었으며, 예상을 넘게 많은 인원으로서빙이 바빠진 가운데 채현철(50회) 박병규 양현진(이상 54회) 후배들이 싹싹한 노력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2시간여의 환담 끝 무렵 공지시간에 박종기 회장은, “내년 총선에 마음이 있는 동문들이 현재 우리 지구에 여러 명 있다. 공천 확정이 되면 당을 가리지 않고 동문으로서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풍(28회) 회원이 발간하는 신문(영도독립신문, 중구신문)의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클라우드펀딩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했다.

아울러 금년 송년회는 12월 20일(수)에 중구 지역에서 가지고 내년 1월 신년회는 동구지역에서 가지는 것으로 공지되었다. 단체 사진 촬영 후, 32회는 남은 술과 안주로 좀 더 앞서서 입가심을 했고, 일부 귀가하고 남은 15명은 강부덕 선배가 근처 찻집으로 인솔하여 쌍화차로 마무리를 하고 밤 10시경 모두 귀가했다.

2023년을 뜨겁게 보낸 남부산지구 동창회

가슴 벅찬 송년의 밤



송년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행사를 마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월 22일(수) 저녁 6시 30분 대연동소재 CGV 상가 3층 '쿠우쿠우'경성대점에서 총동창회 회장을 비롯한 사무국과 동래금정지구, 북부산지구 회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남부산지구 회장과 회원들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송년모임을 가졌다.

50명 참석인원 예상하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58명이 참석해 집행부는 선물도 못받아 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수열(40회) 남부산지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연회비 납부자 70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말을 했다. 공약사항을 지킬 수 있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것에 대하

여도 감사하면서 큰절을 하였다. 내년에는 "남부산 지구 회장배 골프대회"도 열겠다고 공약하였다.

남부산지구 직전 회장을 지낸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사회에서 많은 모임에 참석하고 회장직도 많이 맡아봤지만 본인보다 후임 회장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것을 처음 본다고 한수열 회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내년에도 남부산지구가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하였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은 경남중·고를 명문학교로 알릴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는 모교 야구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서 야구 후원회에 동문들의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 하였다.

최고참 이종철(16회) 동문은 남부산지구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지구 발전을 위해 건배제의도 했다.

교가제창과 단체촬영 후 1차 모임을 마쳤고 20여 명의 회원들은 무지개 호프집으로 이동해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다. 경성대앞 '작품하나'로 3차 술자리가 이어졌으며 3차 주대 15만원은 한수열 회장이 찬조했다.

◇참석자: △내빈 - 이종휘 총동창회장, 예동해 총동창회 사무총장, 정

용운(이상 32회) 동래금정지구 회장, 박동열(35회) 북부산지구 회장, 김경근(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김현오(42회) 동래금정지구 재무국장. △회원 - 이종철(16회) 김동진 김종현 박종찬(이상 25회) 김용석 임상규(이상 28회) 정해석(30회) 김규원 백영태 이규봉(이상 32회) 김종만 최웅남 홍주성(이상 33회) 김정현(36회) 김태성(38회) 박용한 박인석 이상학 정우영(이상 39회) 김대영 노인철 문형욱 배병훈 안성호 한수열(이상 40회) 김동원 김신욱 문태욱 조용락(이상 41회) 박동식 안정일 정용중(이상 42회) 김경진(44회) 박종호 손창오 조청래 최윤석(이상 45회) 신정일(46회) 감기환 박정민 장순재 정민호(이상 47회) 김석훈(50회) 오성진 정유석 (이상 51회) 문희규(53회) 정준섭(54회) 장지훈(55회) 장재환(56회) 안재영 조상원(이상 57회) 김현윤(58회)

◇찬조 : 총동창회 30만원, 북부산 지구 20만원, 동래금정지구 20만원, 용마골프회 30만원, 박종찬 20만원, 박정민 쏘팔메토 1개(30만원 상당), 한수열 여행용가방 2개+쿠키 30만원, 정용중 이가한우 식사권 10만원 3개, 김남표 피부재생 애플 화장품 5개, 조청래 비데 1개, 오성진 선크림 10개

거제지역동창회 가을트래킹

거제지역동창회(회장 : 진양호 34회, 국장 : 윤성진 43회)는 11월 19일(일) 35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추계 동문가족 한마당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거제시 장승포수협 앞에 집결하여, 좌측으로 장승포 망산을 따라 우측으로 천혜 절경의 검푸른 남해 바다를 끼고도는 장승포 해안 산책로를 걸으면서 늦가을의 해안 단풍과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즐겼다.

하이킹 후 오리요리 전문 하원식당(40회 김병기 동문 운영)에서 동문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나누면서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 회장은 캄보디아에 출장 중임에도 특별히 거제지역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격려해 주었다. 거제에 거주하는 엄수훈(25회), 송성림(33회) 동문이 전체 일정을 함께하며 자리를 빛내주었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지역동창회 제1차 이사회 개최

최일진 현 회장 유임, 이현 사무국장 발탁

울산지역동창회는 11월 29일(수) 오후 6시 30분 중구성당동 백약산삼계탕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최일진(31회) 현 회장의 유임의 건, 이현(44회) 동문을 새 사무국장으로 지명한 건에 대한 추인의 건, 송년모임, 신년모임 개최의 건(집행부에 일임),

동창회관 활용의 건(다른 대안이 생길 때까지 36회 강태원 동문의 건물을 무상사용)이 상정되어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참석자 : 최일진(31회) 박거환(25회) 권기택(28회) 이효성(35회) 강태원 박철중 제갈재환(이상 36회) 오희진(38회) 허재원(43회) 이 현(44회) 허근영(52회)



이사회 개최 촬영



신임 이현(44회) 사무국장

전년도 부끄러운 성적을 설욕하려 했건만...

노브랜드배 고교동창야구대회 8강전 탈락



노브랜드 16강전 기념촬영

경남고 OB팀은 노브랜드배 고교동창야구대회를 겨냥하여 KN1942팀을 결성하는 등 상당한 준비를 하였음에도 10월 21일(토) 천안북일고와의 8강전에서 패하여 아쉽게 8강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날 경기는 심판진의 편파적인 판정에 경기를 중단하려고 까지 하였으나 모교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경기를 끝까지 마무리하였다. 경기 후 선수들은 다음 대회를 보이콧하는 문제 등을 심각히 고려하였다.

한편, 10월 8일(일)에 있었던 16강전에서는 배명고를 상대하여 23대 2로 기분 좋게 대승하였다.

10월 8일 경기에서 경남고 OB팀은

41회 이후부터 72회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는 선수층으로 엔트리가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 상대팀 배명고는 젊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황정후(41회) 감독과 윤동배(39회) 경기운영위원의 잘 짜여진 선발라인업과 투수운영으로 1회부터 맹폭을 퍼부어 대승을 이끌었고 또한 팀 엔트리 선수 전원이 경기를 참가하여 팀에 활력을 넣으며 승리할 수 있었다.

선발투수로 나선 김민기(49회) 투수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합계기준으로 13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는 투혼으로 팀 대승을 견인하였다.

또한 손인호(48회) 동문이 1회 선제 3점 홈런으로 팀에 공격을 이끌었고 여기에 김민하(61회) 동문이 썩기 3점 홈런으로 팀 대승에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교체로 들어간 후배 선수들이 전부 첫 안타를 신고하고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승리에 한축을 책임져 주었다.



노브랜드 16강전 김민하(61회) 선수 3점 홈런

◇경남고 OB팀 구성

감독 : 황정후(41회), 경기운영위원 : 윤동배(39회), 코치 : 김정현(50회), 작전코치 : 장민석(55회), 팀매니저 : 손창오(45회), 주장 : 서정민(47회), 투수 : 윤형배(41회) 김재성(42회) 김민기(49회) 강평민(58회), 포수 : 김동현(50회) 하병오(53회) 장수권(57회), 내야수 : 장순재(47회) 이기승(50회) 박철우(59회) 김민하(61회) 남재울(69회) 송재혁(72회), 외야수 : 정 신(47회) 손인호(48회) 정길수(52회) 박정진(53회) 김현종(60회)

◇16강전 응원단 참석자 : 양호진(36회) 덕형리그 회장, 허부남(37회)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 우영환(40회) KN1942야구단장, 정 신(47회) 경야회 회장

골드리그 시즌 우승을 내다보는~

KN1942 야구단의 아쉬운 1패

KN1942야구단은 11월 19일(일)에 열린 리그 3위 G파워와의 경기에서 5대 8로 아쉽게 시즌 첫패배를 기록하였다.

이날 경기는 팀 주축을 구성하는 주요 선수들이 개인적인 일정과 부상으로 경기에 참석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 리그 상위팀인 G파워를 만나 고전하였다.

1회 부터 G파워가 강하게 밀어붙여 다소 당황했지만 선발투수 이기승(50회) 동문이 잘 선방해주었다. 다만 상대팀은 빗맞아도 안타... 우리팀은 잘 맞으면 야수 정면 거기다 상대팀의 연속적인 호수비로 고전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막판 7회까지 선후배 할 것없이 모든 선수들이 악착같은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비록 패배는 했지만 후회없는 경기였다.

한편, 11월 5일(일) 피라냐스와의 경기에서는 7대8 끝내기 승으로 승리하였다.

이날 경기에도 팀 주력선수들이 대거 불참하였으나 손가락 부상중인 남재울(69회) 동문이 선발로 나서 초반 2이닝을 깔끔히 처리해 주었다. 뒤이어 양쪽 무릎 부상중임에도 김민기(49회) 동문이 나서 2이닝을 책임져 주었는데 아쉽게도 수비불안으로 인해 7실점을 하였으나 자책점은 3점으로 선방해주었다. 박철우(59회) 동문이 어려운 상황인 1점차 뒤진 상황에 마지막 이닝을 깔끔하게 무실점으로 막아주어 끝내기 승을 가져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공격에서는 손인호(48회) 동문이 안정적으로 2안타로 공격을 이끌

주었고 서정민(47회) 동문이 공격력에 힘을 보태주었다. 김정현(50회) 동문이 2안타 3타점으로 힘을 보태었고 팀 비선출 최강타자 정길수(52회) 동문이 중월 3루타 등 2안타 2타점으로 상대를 압박하였다.

결정적으로 6대7로 뒤져있는 5회 말 마지막공격 1사 2, 3루 상황에 이봉희(53회) 동문이 앞전 타석에 삼진으로 의기소침할 수 있는 상황을 극

복하고 팀 승리를 안겨준 끝내기 안타로 팀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11월 19일자 경기결과에 따라 KN1942팀은 현재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은 경기 수(3경기)와 상대팀이 하위팀들임을 고려할 때 우승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투수기록에서 이정민투수가 2승을 기록 다승 2위에, 이닝이터 2위, 세이브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골드리그 팀 순위

(2023. 11. 19.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점	승률
1	칸	10	7	2	1	23	0.875
2	KN1942	9	7	1	1	22	0.875
3	G파워	9	5	2	2	17	0.875
4	오셔니언즈	10	5	1	4	16	0.556
5	Rooster	10	4	2	4	14	0.500
6	청마	12	3	0	9	9	0.250
7	개미집	9	2	1	6	7	0.250
8	피라냐스	11	2	1	8	7	0.200
	전체	80	35	10	35	-	-

야구후원회

뒷받침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야구후원회가 경남중을 방문하여 야구부에 피칭머신기를 전달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중·고야구후원회는 11월 22일(수) 경남중학교와 경남고등학교에 야구부 훈련장비인 피칭머신기를 구매하여 전달하였다. 경남중학교에 피칭머신기 1대, 경남고등학교에 피칭머신기(자동볼공

급기 포함) 2대를 전달하였다. 피칭머신기는 다양한 속도와 구질의 공을 조작할 수가 있고 혼자서도 훈련할 수 있어 야구부원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장비다. 코칭스텝들에게도 야구부원들의 훈련에 용이하게 쓰일 것으

로 기대하였다. 유재진(22회)야구후원회 회장과 이종휘(32회)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야구 장비가 부족한 사정을 몰랐으나 피칭머신기를 지원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게 지

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야구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더 기량을 연마하여 모교를 빛내주기를 당부하였다.

◇참석자 : 유재진(22회) 경남중고야구후원회 회장, 박종찬(25회) 경남중고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 이종휘(32회) 경남중고총동창회장, 최재혁(36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김경곤 총동창회 사무국장, 조용철(이상 38회) 경남중고야구후원회 실무위원장, 김경진(44회) KN1942방송국 제작국장, 김동주(51회) 경남중고야구후원회 사무국장, 박순진 경남중학교 교장, 김상욱(53회) 경남중학교 야구부 감독, 경남중학교 야구부 전원, 전광열(44회) 경남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박현승(45회) 경남고등학교 코치 및 코치진 전원, 경남고등학교 야구부 전원

경남중 운동장 베이스 흙 기증

총동창회는 11월 2일(목) 경남중학교를 방문하여 야구부가 사용할 운동장베이스흙(마사+규사혼합) 약 5톤(금액 31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효창수산배에서 우승한 야구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모교를 빛내주기를 주문하였다. ◇참석자 : 이종휘 총동창회장, 예동해(이상 32회) 총동창회 사무총

장, 최재혁(36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허부남(37회) 총동창회 집행위 부회장,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김경진(44회) KN1942 방송국 제작국장, 황정후(41회) KN1942야구단 감독, 남재울(69회), 이성광 경남중학교 교감, 김상욱(53회) 경남중학교 야구부 감독, 김민하(61회) 경남중학교 야구부 코치, 경남중학교 야구부 전원



총동창회가 경남중에 운동장 베이스 흙을 기증하며 김상욱감독과 기념촬영

경남중 야구부 축하연

효창수산배 및 롯데기 중학야구대회 우승



축하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동창회는 11월 24일(금)저녁 코모도호텔 1층 뷔페에서 경남중학교 야구부를 초청하여 저녁만찬을 가졌다. 경남중학교 야구부는 2023 효창수산배 및 롯데기 초·리틀·중·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기에 우승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야구부를 격려했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까지 노력한 선수들은 물론이고 코치진과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도 선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남중 박순진 교장은 3행시로 야구부의 선전과 총동창회의 지원에 감사하였다.

정양래 학부모회장도 모든 분들께 감사한 한 해였다고 회고하였다. 총동창회 허부남 집행위부회장은 즉석에서 내빈들에게 선물을 마련해 주었고, 코치스텝에 금일봉도 전달하였다. ◇참석자 : △총동창회 - 이종휘 총동창회장, 예동해(이상 32회) 사무총장, 최재혁(36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허부남(37회) 집행위부회장, 김경곤(38회) 사무국장, 장지훈(55회) 야구후원회 재무국장 △경남중 - 박순진 교장, 이성광 교감, 김경배 야구부장, 김상욱(53회) 야구부 감독, 김민하 석지형 김동인 코치, 야구부 선수단, 학부모회장 정양래, 부회장 최민욱, 감사 양성모, △특별 내빈 -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 내외

용마 코러스 제10회 정기연주회 참여



10월 28일(토) 동문들이 창단한 '용마코러스' 정기 공연에 경남고 1, 2학년 합창단원들이 참석하여 선배들과 함께 공연을 하였다. '감사와 동행'을 주제로 부산문화회관에서 음악적 향연을 펼친 재학생들은 선배

와의 무대 경험을 통해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음악으로써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함으로써 경남고 일원으로서의 자신감과 소속감을 키우고 예술적 공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2023년 학교폭력예방 어깨동무 체육대회



경남고는 11월 24일(금)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체육대회 일환으로 체육 한마당을 실시하였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상담도 중요하지만, 신체활동을 통한 학교 적응력 함양은 긍정적인 학교생활과 자존감 함양에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다. 본 체육대회에서 이루어진 피구, 줄다리기, 마라톤 줄넘기, 농구 및 계주 등 다양한 반 대항과 체육 활동에 땀과 열정을 쏟은 재학생들은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와 선후배 간의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페어플레이를 통한 경기 능력향상으로 협동심과 애교심을 함양하였다. 특히 오랜만에 전 교정을 메운 응원과 함성은 학업과 경쟁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루를 즐기는 재학생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신나는 하루였다.

존중어울림한마당 공모전 단체전 수상

경남중은 11월 21일(화) 부산시교육청 주최 존중어울림한마당 공모전 단체상을 수상하였다.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운동장에서 푸드트럭 행사를 진행하였다. 푸드트럭 행사 진행 후에는 따뜻한 핫도그와 음료를 먹으며 수화로 존중을 표시하며 인증샷을 남기고 행사 후에는 자발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마쳤다. 자신이 직접 쓴 존중과 감사의 메시지를 배너에 붙이고, 강당에서 학



급 대항 점핑 볼 게임을 함께 하며 즐겁게 웃고 즐기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 뜻깊은 하루였다.

3학년 수능 장도식



경남고는 11월 15일(수) 학생들에게 학업의 여정을 응원하고 성공적인 수능 시험에 힘을 보태기 위해, 후배 재학생들과 교직원이 일렬로 도열하여 3학년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장도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장도식에 참여한 학생과 전 교직원들은 열렬한 응원을 통해 3학년 수험생들이 성공적인 학업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

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우고, 경고인으로서의 연대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었다. 아울러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전 교직원의 간절한 마음과 후배들의 응원에 힘입어 장한 뜻을 품고 씩씩한 걸음으로 교문을 나서는 3학년 재학생들이 더욱 힘을 내어 2024 수능 시험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길 기대했다.

흡연예방 캠페인



경남중은 11월 9일(목) 아침 등교 시간, 학교 정문에서 전교생 대상 흡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흡연예방 및 금연 권유 피켓을 들고 진행하였으며, 흡연예방 서약 나무에

학생들의 지문을 찍음으로써 평생 비흡연에 대한 다짐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담배 대신 건강한 먹거리로 내 몸 사랑하기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가래떡을 배부하였다. 조례 시간에는 흡연 예방법에 대한 가정통신문과 흡연예방 홍보물('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경남중학교' 문구가 새겨진 볼펜)을 나눠준 뒤 흡연예방 4행시 짓기 활동을 하였다. 추후에는 우수 작품들을 선정하고 시상하였다. 이번 흡연예방 캠페인이 경남중학교의 금연 문화 확산, 학교 구성원들의 평생 비흡연 의지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 독서동아리 하동 문학기행

경남중 학부모 독서동아리 회원들은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10월 18일(수), 경남 하동으로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문화해설사와 함께 소설 '토지'의 배경인 최참판댁을 견학하며 작품의 배경, 인물, 주제와 관련된 문학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박경리 문학관에서는 박경리 작가의 생애, 역사를 보며 책에서 얻은 감동을 더욱 넓고 깊게 경험할 수 있었다.



독서를 통해 얻었던 간접경험과 더불어 작가의 삶과 그 지역의 문화가

어우러진 장소를 직접 체험하는 문학기행은 동아리 회원들에게 독서의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평생 독자 양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미회 번개라운딩

비보다 강한 우정이 내리다

11월 16일(목) 양산 다이아몬드 C.C에서 회원 단합을 위한 번개라운딩 모임을 가졌다.

당일의 비 예보가 틀리기를 바랬지만 야속하게 비가 내렸고 후반에 많은 비로 인해 일부는 중간에 포기를 하였다. 신정일(46회), 김민기(49회), 김지운(52회), 정준섭(54회) 동문은 불굴의 의지로 완주를 하였다.

◇시상 - 한수열(40회) 더분발상으로 골프공 정용중(42회) 매너상으로 건어물 박형규(43회) 스마일상으로 건어물 안병규(44회) 니어

리스트로 타이거새우 김상수(45회) 룡기스트로 타이거새우 김민기(49회) 다보기상으로 어묵셋트 정준섭(54회) 다과상으로 어묵셋트 김지운(52회) 최다스윙상으로 상품권 신정일(46회) 우승상품권 박성영(53회) 특별상으로 10만원 상품권 전삼록(41회) 분발상

◇찬조 : 한수열(40회) 10만원 상품권 최영준(41회)고문 50만원 김대영(43회) 회장 구보타 만주 사케 1병(약16만원) + 넥센 골프공 + 간식, 안병규(44회) 40만원(저녁식대)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이 경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건회 창립 31주년 기념산행

건강한 산행으로 활기를 되찾자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건회는 10월 28일(토) 경남고-구덕산-꽃마을 코스로 창립 31주년 기념산행을 다녀왔다.

10시 30분 예정된 출발에 앞서 도착한 회원들은 용건회 회원답게 스마트학교 리뉴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모교의 공사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스카이작업을 세심하게 관찰하였다.

회원들은 각자의 추억을 품고 있는 덕형관, 용마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교정을 둘러보고 본격적인 가을 산행을 시작하였다.

2시간 정도 진행된 산행은 덕담을 나누며 사고없이 무난히 종료되었고 꽃마을로 예약된 식당에 도착하여 정현상(32회) 회장으로 부터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인사말과 산행 성공을 알리는 식전주 건배가 있었다. 용건회가 새롭게 시도한 산행에 의

미를 담은 건배사를 모두가 돌아가며 하였다. 집행부는 12월 14일로 예정된 송년회 행사를 멋지게 준비하겠다고 모든 회원이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024년 4월 내지 5월에 버스로 이동하는 원정 트레킹을 하는 것에 회원들이 모두 동의하였다.

식사 후에는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식당 옆 카페를 찾아 가을 들꽃과 어우러진 차향을 맡으며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참석자 : 류종우(18회) 오경석(20회) 이영학(26회) 류명석(31회) 박성철 장기호 정현상(이상 32회) 송유석 오희진(이상 38회) 김신욱 김인수 이양걸(이상 41회) 심재홍(44회) 이충현(49회) 신현식(51회)+자녀

◇찬조 : 이영학 10만원, 정현상 고급수건 50개 + 10만원, 강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천연물티슈

용마골프회 회장배 라운딩

용마골프회가 11월 6일(월) 더골프 C.C에서 동문회원 48명이 모인 가운데 회장배 라운딩경기가 진행되었다.

아침까지 비가 내려 경기취소를 걱정했으나 행사가 시작되자 비가 언제 왔느냐며 맑은 날씨가 이어져 라운딩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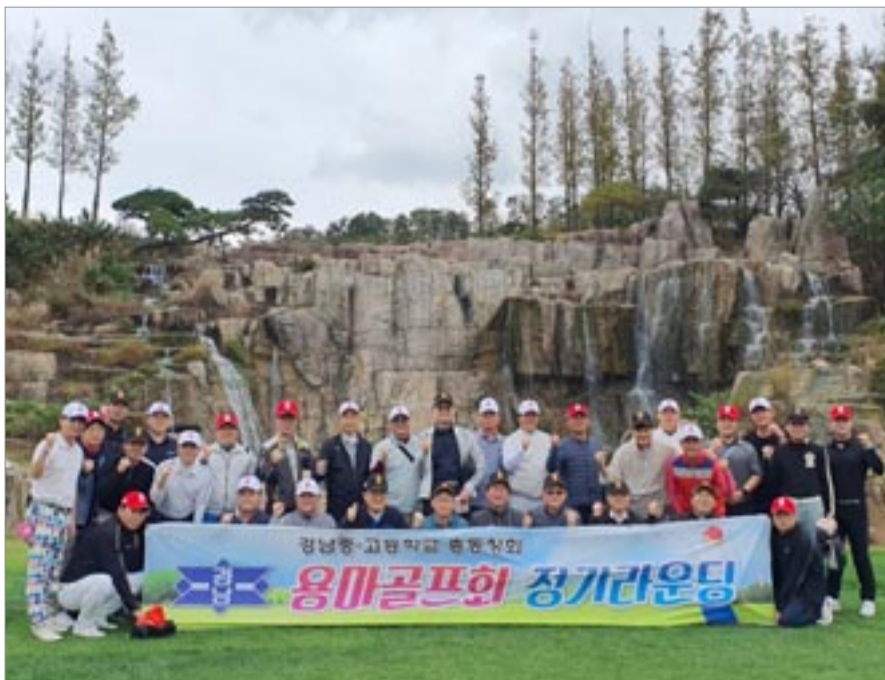
출발 때 참가기념선물로 모자가 배부되었고 단체기념사진 촬영 후 순조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동문들의 현금찬조 690만원 외 많은 물품찬조로 행

사가 풍성하였다. 모든 참석자들이 손에 한아름씩 선물을 들고 갈수 있었고, 그늘집 또한 각 조별로 7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였다.

경기 후 골프장그릴에서 시상 등 마무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회장배 우승은 박정민(38회) 하순호(39회) 회원이 장년부 및 청년부 우승을 각각 차지하였다.

내년 골프회 모임은 양산동원로얄C.C에서 진행하게 된 소식을 전하면서 교가제창후 행사가 종료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이 행사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감사예배 및 20년사 발간기념회’ 가져



감사예배 및 20년사 발간기념회 행사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02년 11월 2일 창립된 경남중고기독교동문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20년사 발간기념회’를 11월 27일(월) 오후 6시, 이비스엠배서더호텔 부산시티센터에서 가졌다.

1부 20주년 감사예배는 김영완 목사(31회)의 인도로 진행되었는데, 박자민 장로(21회)가 대표기도를 하고, 박광식 집사(39회)가 바이

올린 특별연주를 하였으며, 이재철 목사(21회)가 디모데후서 4장 6~8절 말씀으로 ‘시간의 교환성’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기독교동문회 지도 목사 도명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20년사 발간기념회는 회장 정원규 집사(31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회장이 내빈 및 기별소개를 한 후, 총무 김대현 집사(33

회)가 연혁보고를 하였고, 발간위원장 강대석 장로(31회)가 20년사 발간보고를 하였다. 이어진 축하순서에는 강영도 장로(21회)가 트럼펫 축하연주를 하였으며, 총동창회 이종희(32회) 회장과 부산고 김신(29회) 장로(전 대법관)가 축사를 하였다. 이어서 후원금 전달 순서를 가졌는데, 회장이 교도소 사역을 하는 강형식 목사(26회), 노숙자

사역을 하는 문상식 목사(36회), 모교 학원선교를 하는 임양조 목사(부산YFC)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다함께 교가를 제창하고 폐회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남중고기독교동문회가 과거 2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갖는 행사였다.

경불회

선암사 1박 2일 템플스테이

경남중·고 동문불자회(약칭 ‘경불회’ 회장 정영천·21회)는 10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순천시 승주읍에 위치한 조계산 선암사에서 18명의 동문불자와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템플스테이 행사를 가졌다.

순천 선암사는 태고총림으로 백제 성왕 5년(527년)에 아도화상(阿度和尚)께서 창건하고 통일신라시대 도선국사께서 현 위치에 중창한 유서깊은 절이다.

첫 날 13시 25인승 버스에 몸을 싣고 출발하여 16시 선암사에 도착하였다. 사찰 관계자로부터 간단한 출석 점검과 방배정, 사찰예절에 대한 안내를 듣고 적묵당에서 저녁 공양을 하였으며 곧바로

저녁예불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은 오전 3시 30분 기상, 아침예불을 하였고 6시 아침공양 후 7시부터 심검당에서 김법영(33회) 법우가 참석 동문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뇌와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법담을 나누었다. 이후 11시 30분까지 등명(燈明)스님 주재하여 차담을 통하여 함께 법문을 청하여 들으며 2023년 템플스테이 행사를 여법하게 회향하며 마무리 하였다.

◇참석자 : 13회 장영길(이정숙) 21회 김일근, 정영천 28회 서정환(한미혜) 33회 김법영(김미란, 김영숙) 김종만(윤서현) 정영학(김미경, 조말수) 39회 윤원욱 41회 안광근 금강수선회 김미경 조영희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마산악회 합천 황매산 어게인 명품산행



산행에 참석한 회원과 일행들이 산행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월 12일(일) 용마산악회(회장 서석권·35회)에서는 28회 이종태 동문부터 막내기수인 51회 유상일 동문까지 총 40명의 동문과 동문 가족들이 참여하여 합천 황매산으로 야유회를 다녀 왔다. 황매산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의 기암괴석들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또한 봄에는 철쭉이 가을에는 억새평원이 단풍과 함께 수려한 자태를 뽐내며 사시사철 등

산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산이다. 늦가을 다소 쌀쌀한 날씨속에 참가자들은 오전 8시 부산진역에 집결해서 출발하여 10시 30분 산행 들머리인 황매산 미리내파크 오토캠핑장 주차장에 도착하여 간단히 기념촬영을 하고 오전 10시 45분 예정대로 산행을 시작하였다.

이번 산행은 참가자 일부(28, 33회)는 주차장 임도를 따라 억새군락지

로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참가자들은 황매산 정상방향 능선으로 출발하여 정상을 찍고 억새평원으로 되돌아 와서 기수별 중식을 하고 벚틀봉과 모산재를 거쳐 모산재 주차장으로 오후 3시 40분 하산하여 안전하게 산행을 마쳤다.

◇참석자 : 이종태(28회) 김호성(하영욱) 안용모(이상 31회) 김법영(김미란) 정영학(김미경) (윤서

현)(이상 33회) 서석권(윤애덕) 임영규(송준희) 류인수(부인) 신동해 김길호 이현수(부인)(이상 35회) 탁낙준(이미림) 문진형(부인) 윤태훤 강영재(아들)(이상 37회) 안영준 이상학 윤원욱 홍광희(이상 39회) 김치창근(40회) 안광근 류지섭 문상현(권위욱) 최호열(손미정)(이상 41회) 김성준(44회) 이진행(46회) 유상일(51회)

용마코러스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

멋진 열정과 뜨거운 감동...



용마코러스 단원들이 합창을 하고 있다.

용마코러스는 지난 10월 28일(토) 저녁 6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200여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창단 10주년을 기념한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감사와 동행’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연주회는 ‘시간에 기대어’란 합창

곡을 시작으로 6개 파트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다.

김경진(44회)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으며, 초청팀으로 경남고재학생 합창단과 색소폰 앙상블 ‘SUS4 & DRUM’팀의 공연이 있었다.

관객들은 곡이 끝날 때마다 무대의

끝었다.

참석자들 대부분 용마코러스의 실력이 괄목상대하게 발전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단원들의 노력과 열정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합창

의 본질과 가치는 장단점을 가진 평범함들이 무수한 어울림을 반복하여 하나의 비범함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다며 동창회의 품격을 고양시키고 있는 용마코러스 단원들의 열정을 치하하였다.

손수범(35회) 용마코러스 단장은 아마추어의 외피를 벗고 더 많이, 더 넓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한층 더 강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합창단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용마코러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김대욱(29회) 총동창회고문을 비롯한 2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연주회 개최를 축하해주었다.

경남고등학교에서는 백영선 교장을 비롯한 5명의 학교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하였고, 경남여고의 수정합창단, 부산여고의 동백합창단, 남성여고의 클로바합창단, 금성고등학교의 금성하모니, 개성고등학교의 백양합창단 단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연주회 개최를 축하해 주었다.

동기회 및 동오회

일육산악회 = 울산나들이 / 가을산행



일육산악회는 10월 15일(일) 울산나들이를 다녀왔다. 노포동에서 울산직행버스타고 태화강 십리대숲을 5리만 돌고 은하수길에서 캔맥주파티후 무궁화정원을 거쳐 태화루건너 시장동에서 갈비탕 오찬을 마친 후 귀가하였다.

11월 19일(일)에는 낮개산~남파랑4코스~두송반도~해안산책로 일원으로 가을 산행을 다녀왔다. 띄엄띄엄 피어있는 단풍이 익어가는(늘어가는) 우리 산행팀에게 이리 귀한 곳을 찾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다대포입구 더봉장어구이 집에서 오찬(이맹립 제공)을 마치고 해산하였다.

◇참석자 : (10월 15일) 강종국 김한선 박민소 서고명 서태복 안국정 부부 이겸일 부부 이맹립 정신극 정우광 부부 최정일

(11월 19일) 강양수 강종국 김한선 박민소 서고명 서태복 부부 손송방 안국정 부부 이겸일 부부 이맹립 정우광 부부 최정일 하호길 황규정

18회 동기회 = 가을 야유회



18회 동기회에서는 매년 봄, 가을 야유회를 가져왔는데, 금년의 가을 야유회를 지난 10월 29일(일) 56명(부인 14명 포함)이 참석하여 김길제 고문이 제공한 2대의 MSC버스로 예년과 같은 코스인 신불산 아래의 주암계곡 입구에서 하차 후 임도를 2시간 정도를 철구소까지 걸으며 늦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겼다. 오랫동안 만난 동기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며 힘든줄 모르게 걷고, 기다리고 있던 버스편으로 봉계로 이동하여 대복식당에서 한우갈비와 푸짐한 안주로 점심을 해결하였다. 마지막 코스인 밀양한천 전시관에 들려 시식과 쇼핑을 하였고, 김길제 고문이 제공한 선물을 받아들이고, 동기회 행사로는 마지막이 되는 야유회의 단체기념사진을 끝으로, 출발지였던 교대역으로 돌아와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졸업 6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회비도 걷지 않고 이런 야유회 행사가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기도 하지만, 내년 졸업 60주년 기념으로 추진하는 크루즈여행을 기대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참석자 : 김기성 김사권 김성수 김원태 김홍국 노성현 박성철 배세원 서부원 우원호 이우삼 정정돈 천두갑 하영일(이상 부부) 강덕용 강영호 김길제 김병수 김영일 김용기 김재경 김정태 김태균 김희

17회 동기회 = 가을 야유회



차창으로 펼쳐진 가을 정취를 만끽하면서 출발하였다. 밀양 얼음골을 지나 언양 작천정 인근의 부산식당에서 다슬기탕으로 중식 후 울산반구대로 이동 선사시대의 암각화 구경 및 기념사진 촬영을 하였다.

경주 남산 삼릉입구에

도착하여 A팀은 하영수 위원장 인솔로 산행을, B팀은 신정아 국장의 안내로 박물관을 관람한 후 봉계 황가식당으로 이동하여 한우숯불고기를 곁들인 푸짐한 저녁과 즐거운 담소로 여정의 피로를 달래며 집행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고 버스를 타고 뜻깊은 가을 야유회 행사를 마감하였다.

◇참석자 : 김대희 김원일 김준연 문석웅 박영두 박영일 박흥식 송인문 신정아 윤석웅 윤수성 이정호 하영수(이상 부부동반) 강주수 김길호 김용남 박가식 박신도 박인사 박재구 손영문 송유근 오태식 천용광 최좌삼

17회 동기회(회장 김준연)는 10월 28일(토) 38명(부부동반 참석 13명)이 참가하여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날씨는 더없이 맑고 푸른 하루였다. 오전 10시 부산진역인근에 집결하여 관광버스에 탑승 후 김준연 회장의 간단하지만 명쾌한 인사말과 신정아 사무국장의 개인별 배부된 행사계획표에 따른 일정소개가 있었다.

하영수 준비위원장의 경주 남산산행 A팀과 경주박물관 관람 B팀에 관한 소개 및 안내후 몇 년만의 역외 행사를 갖는 감회에 젖은 채 달리는

중 박건태 박수원 박종순 배성국 서차수 손천익 송유봉 오수명 이재일 이호국 임영섭 장기현 정기룡 조양수 진상영 최희영 하진봉 홍광희

◇참석자 : 강덕용 김길제 김사권 김용기 김원태 김홍국 박동오 박순정 박영복 박종순 서부원 오수명 우원호 조성재 천두갑 하영일 홍광희

18회 동기회 = 회장단모임



지난 11월 2일(목) 저녁 7시 서면 조양숯불갈비식당에서 회장단모임을 가졌다. 내년 졸업 6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금년은 따로 회장없이 공동회장단체로 운영하기로 한 이후의 모임이라 역대 회장들과 총무 및 감사들까지 17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10월 29일 가을 야유회의 결산 보고에 이어 내년 5월로 예정된 졸업 60주년 기념 크루즈여행의 추진 방향과 회관 운영 및 처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내던 동기회비도 없애기로 하고, 지금까지 동기회비 적립분으로 내년 5월에 일본 크루즈여행을 추진해나가기로 하되, 참가신청을 금년 11월 15일까지 받기로 했다. 10년 이상 회비를 납부해오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여행에 참가하지 못하는 동기들에게는 이달 중으로 50만원씩 보상해주기로 하였다.

회관유지문제는 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짐으로 정리하기로 하되, 회관 활용자중심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날의 식사경비는 김길제 고문이 제공했다.

18회 동기회 = 가을소풍



지난 11월 26일(일) 36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여 감포와 경주로 가을소풍행사를 가졌다. 원래는 년 1회 낚시대회를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낚시대회가 슬그머니 없어지고 가을 소풍이 되었다. 10시 서면 동기회관에 모여 김길제고문이 제공한 버스편으로 부울고속도로를 달려 감포항에 도착하니 점심때가 되었다. 이견대 회식당 2층에 마련된 우리들만의 공간에서 든든한 회코스로 점심식사를 하고, 감포바닷가를 걷거나 오랫동안 만난 친구들과의 정담을 나누다 오후 2시가 넘어 경주의 5릉으로 갔다. 동기들 나이로 인하여 단체 무료입장객들이었지만 문화유산해설사는 추운 날씨에 많이 와 줘서 오히려 감사하다면서 친절하게 많은 설명을 해주었다. 설명을 듣는 친구들의 표정도 진지하고 질문도 많았다.

오후 5시까지 5릉을 찬찬히 둘러보고 지난 10월 29일에 있었던 가을 야유회 때의 점심장소였던 봉계의 대복식당으로 가서 한우고기로 저녁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나니 날이 많이 어두워져 서둘러

(기사 17면에 계속)

<기사 16면에 이어>

귀가 길을 재촉하여 출발지였던 서면동기회관앞에 도착하니 밤8시가 지나 있었다.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아쉬운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참석자: 강덕용 강영호 김기성 김길제 김만근 김병수 김사권 김성수 김용기 김원태 김정태 김태균 김홍국 노성현 박건태 박수원 박순정 박영복 박종순 배성국 서부원 서차수 손천익 송유봉 오수명 이흥수 임영섭 장기현 정기룡 정정돈 조양수 진상영 하영일 하진봉 한영선 홍광희

◇찬조: 김길제 버스 및 100만원, 천두갑 20만원, 김성수 20만원, 김사권 김원태 김정태 박수원 박종순 서부원 장기현 정정돈 각 10만원

20회 동기회 = 아우회



10월 20일(금) 오륜대에서 아우회를 개최했다. 드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아래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팥되산 둘레길을 함께 걸었다. 멀리 LA에서 온 박병철 동기, 대구에서 온 허규관 동기도 참석하여 모처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엔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오리 전문점인 오륜본동기와집에서 식사를 한 후 12월의 송년회를 기약하였다.

◇참석자: 강석근 강영환 부부 김세준 김조동 남경열 류영덕 박기상 박병천 박병철 박장대 신현석 우철성 윤병규 이실근 이종열 장병호 장상배 장춘식 정승창 최장하 표문배 허규관 허남균

23회 동기회 = 11월 모임



11월 23일(목) 범일동 외식촌에서 11월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강동식 김기룡 김기열 김덕규 김상영 김상호 김영기 김주찬 김진엽 김창범 김태홍 김현구 박무열 박수갑 박영창 박재호 박정분 신상희 신언극 안호창 윤순현 이덕남 이상운 이용원 이인근 정연철 조윤종 최대일 한영철 허용수 홍덕표

24회 동기회 = 10월 모임



19회 재경동기회 = 가을 아우회



10월 21일(토) 7시 10분 잠실역 3번 출구 19명의 번개 같은 탑승으로 가을 여행은 시작되었다. 8시 북정역에서 2진 탑승 18명, 잘난 우리 동기들과 그들의 동반자 37명이 목적지 철원을 향해서 출발~~~~~

가랑비가 잠깐 내린 탓에 1시간 후 공기 청정으로 맑은 하늘!!! 그야말로 청정 가을 여행이 되었다.

지난 수년간 온 국민을 뽀뽀 묶어 놔던 코로나 때문인지 올해 가을은 나들이객들로 온 거리가 초만원이다. 총무가 열나게 노래도 하고 노래를 시키기도 했지만, 다들 할배들이 되었는지? 이른 아침 원행 준비 때문이었는지?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는다. 총무가 "배고팠다" 소리 안 들으려고 쉼없이 준비해온 먹을거리 해치우는 동안 그럭저럭 예정보다 약15시간 늦게 철원 순담계곡 주차장에 도착, 이복춘

동기의 인도로 순담계곡으로 향했다.

철원군의 관광객 유치에 위한 야심찬 설치로 잔도, 출렁다리 등으로 이어지는 계곡은 아직 가을이 완전히 익지는 않았으나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 공기는 새벽잠을 아끼고 달려온 걸음을 보상하기에 충분했다.

계곡 잔도에 관광객이 너무 많아 진행이 늦었고 잔도 트래킹 완주팀과 단거리 팀과의 합류 지점까지 도로 정체 등 합류가 지연되어 모든 일정이 계획보다 느리게 진행되어 아쉬웠지만 오랜만의 동기간 정겨운 동행은 목말랐던 만남의 즐거움을 만끽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넘치는 방문객의 예약 러시로 식당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단독 공간을 확보하여 서울서 준비해간 불고기를 곁들인 식단에 시간 관계상 고석정 보트놀이의 포기로 음주가 허용되어 예상 못한 한잔 술에 애주가 동기들은 알큰한 술기운이 즐겁기도 하였다. 고석정 보트타기를 포기한 아쉬움 대신 삼부연 폭포를 탐방하여 37명의 잘난 얼굴들을 카메라에 담고 서울로 향하여 최종 목적지인 만찬 장소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 만남의 약속하며 즐거운 하루를 마감하였다.

10월 24일(화) 미정희집에서 18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10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강종문 곽두희 김경남 김명배 김성권 김인구 김인철 노상우 안명수 안상수 안태인 오성환 유홍석 임민호 장현동 주점권 최동우 태창업

24회 산우애 = 10월 정기산행(제252차)



10월 7일(토) 부산진역~사천 제일국수~남해 보리암 주차장~북곡탐방 지원센터~금산 정삼~보리암 주차장~상주 해수욕장~독일마을~자연산 해성횃집~부산진역 코스로 10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11월 산행은 11월 9일(목)에 서울 산타래와 경부합동산행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참석 희망자를 조기에 파악하여 승차권 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다.

◇참석자: 곽두희 김도현 김인구 김해룡 박해성 배재일 송순철 안형수 여철우 임민호 장민재 장수현 장현동 조재진 최동우 최승국 최원주 태창업 황성동

24회 산우애 = 산타래 경부합동산행



11월 9일(목) 재경동기회 '산타래' 주관으로 '산우애'와 경부합동 산행을 다녀왔다.

오전 6시 10분 부산역발 서울역행 KTX 008열차를 탑승 오전 9시 5분 서울역에 도착하여 서울 '산타래'의 환영을 받고 청와대로 이동하여 단체사진을 찍은 후 청와대를 관람하고 관광과 북악산 산행팀으로 나누어 일정을 진행하였다.

◇참석자: (산우애) 곽두희 박해성 여철우 유홍석 임민호 최원주(이상 부부동반) 김도현 김성득 김영식 김인구 김인철 박홍규 배재일 안형수 장수현 장현동 조재진 주점권 최동우 최승국 태창업 한승철 황규선 황성동

(산타래) 강기중 권영기 김병수 신병식 유인환 유철주 이현국 정봉화 조현찬(이상 부부동반) 김경석 김성출 김영철 문병대 박장호 박군철 서기홍 석문식 손인수 안형모 양재일 여성철 유병우 이근배 이명규 이한영 전용우 정진락 정태진 조영수 조흥래 최병석 추현무 한예식

<기사 18면에 계속>

동기회 및 동호회

<기사 17면에 이어>

24회 이사빌 = 10월 정기모임



10월 18일(수) 플라틴 당구카페에서 10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경기결과 - 우승 :태창업, 준우승 :이재능

◇참석자 : 김경남 김명배 김성권 김인구 김장현 노상우 박인호 이재능 임덕철 장현동 최창립 태창업 한승철 황성훈

24회 이사빌 = 제9회 동창회장기 쟁탈 용마당구대회 참가



11월 18일(토) 다빈치 당구장에서 개최된 동창회장기 용마당구대회에 참가하여 A조(김학주, 임덕철, 노상우, 황성훈)가 패자전 우승을 차지하였다.

◇참석자 : A조 - 김학주 노상우 임덕철 황성훈, B조 - 김경남 정기춘 태창업 한승철, 꺾러리 - 곽두희 김성권 김인구 김인철 박인호 임민호 주점권 최우림

24회 후라회 = 47주년 경부야구대회



11월 11일(토) 경남고 운동장에서 47주년 경부야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총동창회에서 최재혁(36회) 동창회보 편집주장과 김경곤(38회) 사무국장이 기념타올과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격려하였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의 HURRAH 단장을 맡아 수고한 구분준 회장과 장민재 회장에게 선수들의 싸인이 적힌 싸인볼을 증정하고 구분준 회장이 올해 47주년을 맞아 경기를 가진 소회를 밝히며, 50주년까지 더 모임을 갖기를 제안하였고, 장민재 회장이 50주년까지 3년간 더 경부야구대회를 하기로 선포하고, 전체 참석자의 환호와 건배로 이를 공식화하였다.

◇참석자 : (부산) 강동우 강종문 곽두희 김경남 김도현 김인구 김인철 김학주 노상우 이방우 임민호 장민재 장현동 최동우 태창업 황성동 (서울) 강

20회 재경동기회 = 전어축제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모처럼 모인 회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들어보기 위하여 테이블 단위로 돌아가며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원들의 한마디 발언 중에서 구분홍 회원

의 건배사가 히트를 쳤다. 구회원이 “일부다 쳐!”(일단 부으면 다 쳐마셔라)라고 외치자, 회원들이 일제히 “일처다부!”(일단 쳐마셨으면 다시 부어라)라고 힘차게 받았다.

유근준 총장은 회원들이 일흔 중반 고개를 넘어가며 더욱 기력이 넘쳐 참석인원수도 늘어갈 뿐만 아니라 좌중 분위기가 활기에 넘쳐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다는 덕담을 붙였다.

이어 오는 12월 20일(수) 낮 12시 신사동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되는 송년회에 부부동반으로 많이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7시 반이 다되어 이날의 모임을 마쳤다.

◇참석자 : 강두상 강병천 강부덕 고세훈 공영건 구분홍 구영남 김갑수 김성룡 김영생 김재민 김정환 김종민 김중화 김향근 노선호 박승현 박원재 배준태 백완균 변기석 서경석 성인표 손승기 송경배 신용완 신원기 양태운 오기현 오세윤 유근준 윤봉태 윤우성 윤재일 윤종량 윤희창 이경하이계명 이기복 이기현 이맹기 이영오 이용환 이윤선 이응직 임세호 전유태 조영철 조준섭 진창현 차상목 차용환 차재권 천현주 최석립 최성배 한개정 황경선

모처럼 만나는 친구들끼리 반가운 악수와 안부를 나누느라 왁자지껄한 가운데 반주와 더불어 싱싱한 전어회로 식사를 마치고 오후 7시 정각에 김향근 회장이 일어서서 인사말을 하였다. 김 회장은 회장직을 맡고 금년 들어 3월 중순경부터 척추관협착증으로 3차례에 걸쳐 시술을 받고 한방치료도 받으면서 고생을 하였으며 이날 낮에도 병원을 다녀오는 길이라 그동안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못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영창 구분준 김경석 김구대 변정규 안형모 오기봉 이명규 이종구 이효구 주정규 하영봉 한승희

25회 동기회 = 첫 해외여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옛 학창 시절의 친구, 모교가 생각 나는 좋은 계절에 지난 봄소풍(순천만정원박람회)에 이어 이번 가을소풍을 김종현 동기회장의 저돌적인 추진력과 사무국장의 노력 또 몇몇 동기생들의 협찬으로 11월 13일(월)~15일(수)(2박 3일) 일본 후쿠오카로 38명의 많은 동기생이 참석하여 가을소풍을 다녀왔다.

진짜 진짜 맛난 것 많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며 너무 즐겁게 우정을 나누는 귀한 자리였다.

◇참석자 : 강용주 김구화 김옥권 김용수 김유환 김종국 김종현 노태호 박광용 박종찬+1 박창훈 배동명 신성찬 안희석 여성조 예종복 옥동훈 윤태석

이상화 이상훈 이태근 이한식 장세훈 장승엽 전상태 전섭태 정동운+1 조판제 최병주 최재환 최차환 하동문 한봉재 황근태 황철

25회 산우회 = 정기모임



25회 산우회는 10월 8일(일) 목포항~팔랑포~목포대첩기념관~덕포해수욕장~대계마을 김영삼 대통령생가 코스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 김구화 김용수 노태호 박문갑 엄수현 여성조 옥동훈 이창훈 이태근 하동문 황근태

25회 당구회 = 제9회 동창회장기 쟁탈 용마당구대회 참가
25회 당구회는 11월 18일(토) 뉴비치당구장에서 개최된 제9회 경남중고 동창회장기 쟁탈 용마당구대회 단체전에 참가하였다.

<기사 19면에 계속>

<기사 18면에 이어>



김종현 동기회장 외 많은 동기생들의 응원에 힘입어 3위에 입상(상금 30만원)하였다.

◇참석자: 김옥권 김용수 김종현 신성찬 여성조 옥동훈 이상영 이신화 이인구 이한식 장세훈 전상태 최차환 한봉재

25회 VS 29회 바둑친선대회



25회와 29회 동기회는 12월 2일(토) 오후 3시 서면에 위치한 푸른기원에서 동기 각 대표 10명씩 출전하는 바둑친선대회를 가졌다.

1:1로 두번씩 대결을 벌인 결과 1차전, 2차전 모두 5대5 무승부를 기록하여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사이좋게 마무리 되었다.

한치도 양보없는 치열한 경기를 치루면서도 선후배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멋진 이벤트가 되었다.

친선바둑대회를 마치고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이 1차 저녁식사를, 2차 주대는 김대욱(29회) 총동창회 고문이 찬조하였다.

◇참석자: △25회- 박종찬 여성조 김우형(1급) 양시욱(1급) 윤종렬(1급) 이상화(1급) 장승엽(1급) 박원규(2급) 이동석(2급) 이명철(2급) 김종현(5급) 옥동훈(5급) △29회- 강성훈(1급) 김대욱(1급) 이영태(1급) 김영훈(3급) 박장철(3급) 서석철(3급) 이한철(4급) 박봉구(4급) 서영학(5급) 정길(5급) △총동창회- 예동해(32회) 사무총장, 김경곤(38회) 사무국장

26회 동기회 = 11월 월례회



11월 24일(금) 자갈치 신동아회센터 3층 15호에서 11월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오랜만에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여 생선회에 소주를 곁들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강수남 권해국 김상현 김선일 김섭권 김중우 김지승 김택영 박만식 박상호(의) 박재창 박철홍 왕정일 윤흥석 이상원 이정민 이정일 장경재

31회 동기회 = 가을여행(역사, 문화 탐방)기



가을이 깊어 가던 11월 18일(토) 아침 31명의 동기들은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가을여행(역사, 문화 탐방)길에 나섰다. 작년 설악산 가을여행에 이은 두번째 나들이로 반백의 친구들은 초당 소풍 때처럼 들떠있었다.

마침 전국엔 눈이 내려 우리의 여행을 축하해주는 듯했다. 행선지는 전주 한옥마을, 새만금 방조제, 부안 채석강, 고창 선운사, 고창 고인돌 박물관, 보성 벌교, 보성 태백산맥 문학관이다.

첫번째 휴게소로 진안 마이산 전망대에 올랐다. 흰 눈을 머리에 인 멀리 암봉 수봉의 우아한 자태에 모두들 탄성을 질렀고 이상한 열정에 휩싸인 건 나만은 아니리라 믿는다.

조금 더 달려 도착한 곳은 전주 한옥마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전주의 명물 전주비빔밥을 먹었는데 소고기와 각종 나물이 어우러지고 자극적이지 않은 감칠맛에 한그릇을 마파람에 게눈감추듯 폭풍 흡입했다. 식후 한옥마을 관광에 나섰다. 광활한 면적에 조선전통 한옥과 문화체험시설, 먹거리, 볼거리 시설이 가득한 이곳은 주어진 90분이 턱없이 부족했다.

다음에 도달한 곳은 광활한 새만금 방조제! 황해와 내해를 가르는 방조제는 완공됐지만 내해 매립공사는 진행 중이다. 저 넓은 바다를 언제 다 매립하러나? 당연히 지도도 바뀌겠지.

다음에 도착한 곳은 채석강 일몰감상지였다.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속해있는 곳이지만 우린 기암절벽 동굴은 빼고 부산서 보기 어려운 일몰절경을 보기 위해 내렸으나 시간이 좀 남고 날이 추워 다시 버스에 올라 고창 선운사로 향했다.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짐을 풀고 목욕을 하고 드디어 고대하던 저녁 만찬이다. 고창의 명물 풍

천장어구이와 복분자술! 다들 별로 쓸데없어진 양이지만 분능적으로 장어와 복분자술을 너무 먹어대 집행부 예산이 훨 초과됐을 것이다.(감사~)

다음 날 호텔측에선 깨진 소변기 여럿을 발견하

고 배상을 요구했다던데 믿거나 말거나다.

저녁 후 방마다 삼삼오오 둘러앉아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옛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황태해장국으로 숙취를 달라고 대망의 고창 선운사에 올랐다. 사찰은 호텔에서 1킬로 남짓했고 누군가 틀은 송창식의 "선운사를 아시나요"를 흥얼거리면서 본 주위의 산과 개울, 다리, 단풍 등이 그림같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그 가수도 선운사에 폭 빠질 수밖에 없었나 보다. 선운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되고 도솔산(선운산) 아랫자락에 위치한 역사깊고 고졸하고 주위경관이 아름다운 수려한 절이었다.

꼭 다시금 가서 천천히 멍때리고 싶은 장소였다. 선운사를 뒤로하고 간 곳은 고창 고인돌박물관이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 걸쳐 이곳에 나타난 거석유적과 돌칼, 돌화살, 청동기유물, 당시 집터유적 등의 발굴 실물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세계 각지의 거석문화와 비교 전시하는 곳이었다.

정말 고창은 예전부터 기후가 좋고 물산이 풍부한 곳이었나 보다. 책으로 보던 석기시대 유물을 직접 보니 옛 사람들의 지혜와 노고가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점심은 보성 벌교의 꼬막정식인데 탱글탱글하고(싱싱함) 육즙 풍부한 꼬막무침, 구이 등으로 배터지게 먹었다.

마지막 방문지는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문학관이다. 해방과 한국동란을 배경으로 분단시대에 민초들이 겪는 아픔을 그려낸 대하소설이 태백산맥이란다. 이 일정을 소화하고 우리 일행은 귀가버스에 올랐다.

장종언 정인수 정철주 조만석 최의수 최현(차) 허중홍순하 홍청곤

◇참석자: 김준영(회장) 권순홍 이요섭 부부 정수화 조우영

27회 동기회 = 기독교동문회 모임



10월 16일(월) 수변공원 광안다찌에서 부부동반으로 신우회 모임을 하였다.

28회 VS 29회 바둑친선대회



10월 21일(토) 오후 3시 서면 푸른기원에서 경남중고 28회와 29회의 바둑친선대회가 있었다.

<기사 20면에 계속>

동기회 및 동호회

〈기사 19면에 이어〉

이날 행사에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이 참석하여 격려금을 전달하고 선후배간의 이러한 교류에 큰 박수를 보내주었으며, 김대욱(29회) 총동창회 고문이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30회 동기회 = 경부합동소풍



30회 동기회에서는(부산 회장:이명건 서울 회장:최병철) 10월 8일(일)부터 1박 2일간 경부 합동 소풍(경북 울진)에 부산 39명, 서울 38명 총 77명이 참가하였다. 울진의 불영사, 죽변항 해안 스카이라일, 왕피천 공원 등을 구경하였으며 자연 용출 온천으로 유명한 경북 울진 덕구 온천에 여장을 풀었다.

이번 여행에 동기 부인 7명도 동행하였다. 첫날 구경 후 울진 대계궁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2부 행사로 김재철 동기의 퀴즈맞추기 이벤트와 울산 김한실 동기 부인의 팬플루우트 연주도 있었다. ◇참석자 : (부산) 구교익 권용택 권택술 김병기 김재수 김재중 김재철 김진동 김한실(울산) 김효수 노치훈 박동욱 박병하(울산) 박원호(울산) 박철우(창원) 박희관 배경조 서강태 서민석 송한식 신인기 오수동 우흥제 유재일 유창열 이명건 이원경 이원용 이호준 정광 정채화 최우철 홍인기 김한실 부인 박병하 부인 박원호 부인 박철우 부인 송한식 부인 최우철 부인

(서울) 공영호 권영인 김경환 김길수 김병욱 김창근 김창모 김철광 김해균 김홍수 남영효 박모철 박세우 박은수 박진명 박찬민 박춘욱 방문수 배승한 서국태 서상국 신경호 이덕원 이민영 이상욱 이상호 이성무 이재봉 이학희 장무상 정우정 정정호 조길래 최경도 최병철 한효용 하용성(호주) 하용성 부인

30회 동기회 = 경부 친선 당구대회



10월 29일(일) 부산 남천 당구 클럽에서 31명의 동기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부 친선 당구 대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참석자 : 구교익 권택술 김경환 김유기 김재수 김한실 명효준 박광호 박모철 박진명 서국태 설광열 송한식 신영주 오수동 우흥제 육근록 이광봉 이명건 이민영 이상수 이상호 이용우 이원경 장영조 정광 정규홍 정용하 정채화 지진홍 홍인기

34회 동기회 = 53회 기별야구대회 후기



마다하고 달려와 주었으며, 부산에서 권대식, 김태하, 이문걸, 이상운 동기와 이상운 동기의 아들 둘이 참가하여 멋진 승부를 펼쳤다. 그리고 이성엽 동기회장과 옥재명 사무국장, 김범석, 김중근, 김태관 동기가 열띤 응원을 보냈다.

10월 8일(일) 열린 기별야구 장년부 1차전에서 38회에게 12:7로 아깝게 지고 말았다.

이기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도 어느덧 환갑이 훌쩍 넘어 부상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봄에 열리는 재경 기별야구에 이어 전국 각지의 친구들과 야구를 매개로 만나서 반갑게 어울리고 소주 한잔으로 회포도 푸는 아주 소중한 날이었다.

이 경기를 위해 서울에서 전재병, 천안에서 이채봉, 대전에서 김한조, 포항에서 박재찬, 진주에서 조현진, 거제에서 김정문 동기가 열일을

이어진 뒷풀이 식당에서 맛있는 제주흑돼지 오겹살로 패전의 아쉬움을 씻어 내었다.

73만원의 식대 전부를 이성엽 동기회장이 부담하였으며, 진주의 조현진 동기가 10만원을 찬조하였다.

부산에서 활동하던 '행님야구단'이 해체되어 아쉬움이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야구를 사랑하는 동기들이 모여 '청춘야구단'을 창단하여 봄, 가을에 있는 부산과 재경의 기별야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성엽 동기회장이 이날의 식대와는 별개로 50만원을 '청춘야구단'에 지원하였다.

33연우회 = 단합회



지난 10월 22일(일)~23일(월) 대마도에서 1박 2일간 회원 친목 단합행사를 개최하였다.

◇참석자 : 계동원 김영길 서재영 윤석근 이호인 조문규 진태호



5일(일)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에서 하였다.

주말에 비소식이 있어 다소 걱정이 되었지만 화창한 봄처럼 따스한 가을분위기 속에서 형형색색으로 수놓은 단풍과 아름다운 괴산호수가 어우러진 들레길을 걸으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우정이 달콤하게 무르익어갔던 하루였다.

오문세 동기회장이 이번 행사를 위해 보은·보냉 텀블러 50개와 표고버섯, 최형돈 재경동기회장이 재경동기회에서 50만원 찬조도 하고 개인적으로 회비포함 10만원, 김영철 수석부회장이 회비 외 10만원, 김길호 동기가 기념 타월 32박스(1박스당 2매)를 찬조하였다. 술만취하면 지갑이 잘 열리는 신동해 동기가 사모님 다섯 분에게 1만원씩 드렸다.

◇참석자 : 김종태 류인수 백현성 송호성 이효성(이상 부부동반) 권기범 김길호 김선택 김영철 박동열 손기철 손태섭 신동해 오문세 유병로 유용호 이남기 이인욱 이철희 정인철 정종길 조상규 조신제 조영제 최기평 최형돈 홍성표

33당구회 = 정기모임



10월 31일(화) 오후 4시 다빈치 당구클럽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총동창회 회장기쟁탈 당구대회 참석준비를 하였다.

◇참석자 : 김상욱 남경태 박근보 박상국 백흥문 옥종훈 유희철 이훈 최환호 홍주성

35회 동기회 = 전국합동 들레길걷기

경남고 35회 전국합동 들레길 걷기 행사를 11월

35회 울산동기회 = 송년회

지난 12월 3일(일) 외식명가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35회 본부동창회 송년회에 이효성 전상건 박희찬 동기가, 본부동창회 5개 기수 멘토 메티데이

〈기사 21면에 계속〉

<기사 20면에 이어>



합동송년회에 이효성 전상건 동기가 참석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동기회장의 연임에 따른 부담을 없애고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모두 맡는 것으로 정했다. 경조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정기모임 일자를 짝수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참석자: 강창호 남권효 박희찬 유철인 이효성 전상건

36회 동기회 = 가을 야유회



36회 동기회는 11월 12일(일) 금정산 남문입구~대륙봉~남문~봉수대~파리봉~대성집(회식장소) 코스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지난 해 졸업 40주년 홈커밍데이를 계기로 매년 실시하기로 한 소모임행사로 46명이나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오리불고기와 오리탕, 삼계탕으로 점심을 든든하게 먹었다. 식사 후에는 소모임(야구, 산행, 당구, 골프)별로 팀을 구성하여 족구 시합을 하였다. 날씨는 다소 쌀쌀했으나 동기들 간 화합의 입김은 뜨거웠다.

◇참석자: 김경무 김경찬 김광수 김규선 김동일 김동현 김상백 김수용 김용진 김정현 김종구 김종백 김종오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1) 김호영 맹경태 박종선 성귀호 손진규 송준호 안재익 양호진 우한주 윤경준 이상권 이상호 이창(+1) 이필이 임창의 장상욱 장창용 전영목 전현우 정병기(+1) 조성영 차대일 최상도 최재혁(+1) 최태섭 한만준

◇찬조: 김용진(동기회장) 기념타올 50장 이창 20만원 김철원 20만원 이상권 10만원 최재혁 20만원 정병기(산행대장) 10여 만원 상당 주류

36회 당구회(빌리36) = 동창회장배 우승, 동기회당구대회 개최



42회 동기회 = 정기총회



지난 12월 1일(금) 동구 초량동 장춘방 중식당에서 35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여 2023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객창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았고 바쁜 연말에 이렇게 시간내어 함께해주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올 한 해를 빛내준 동기에게 시상했다. ‘K423 골프상’(42회와 43회 골프모임)은 골프동호회 김원주 회장에게, ‘K42봉상’은 동기산악회 고장석 산악대장에게, 와인모임 ‘베이스캠프상’은 문지성 캠프장에게, ‘감독상’은 박일수 기별야구감독에게, ‘작가상’은 한태희 밴드작가에게, ‘감사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가의 시계와 가방을 협찬한 안용진 동기에게, ‘35주년 기념상’은 박동식 고문에게 각각 시상을 하였다. 정기총회의 하이라이트 ‘친구42상(대상)’은 7년간 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연회비와 각종 모임 시 모든 재정관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관리한 안정일 재무국장에게 돌아갔다.

모든 시상을 마친 객 회장은 지난 시간을 되돌

아보며 이임사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동기회 모임에 임해준 동기들과 임원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마지막 회장으로서 의무를 다했다.

2024년부터 2년 동안 동기회를 이끌어갈 강인호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재임기간 중 기별야구우승을 꼭 이뤄 보겠다”고 말해 참석한 동기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사무국장 처우 문제와 반별 부회장 선출, 연회비 납부 독려 등 실무적이고 진취적인 공약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의 첫 공식 무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강 신임회장은 객창우 직전회장과 정홍준 직전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단체선물로 ‘KN42’ 로고가 쓰인 후드티를 제작해 전달했으며 행운권은 롯데백화점 상품권 30만원과 ‘까르띠에’ 손목시계, ‘루비통’ 가방을 전달했다. 모든 행사를 마친 뒤 2차로 장춘방 2층 ‘장춘방 바’로 이동하여 노래를 곁들이며 흥겨운 시간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2024년은 반드시 올해보다 나은 한 해로 만들자며 다시 힘찬 도약을 약속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몇몇 동기들은 3차에 임하는 전투력을 보여줘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11월 18일(토) 부평동 다빈치당구장에서 개최된 총동창회장배 당구대회 단체전에 빌리 36회원 3개 팀이 출전하여 이필이(빌리 36 회장) 김규선 김한교 오정광 팀이 우승하였다. 이로서 36회는 9회째 대회 중 2회우승의 영광까지 차지하였다.

12월 2일(토)에는 40여 명의 동기들이 참가한 가운데 범일동 총알탄당구장에서 동기회당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동기회 당구대회는 오전 9시경 시작하여 가까운 중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오후 3시경 종료하였다. 경기 후에는 77숯갈비집으로 이동하여 늦게까지 당구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동기회 당구대회 참석자: 객창우 김광수 김규선 김동기 김동일 김동현 김병조 김상백 김수용 김용진 김정현 김종백 김종일 김철원 김한교 김호영 김호욱 김호진 맹경태 박재영 박형출 성귀호 손진규 송준호 신창우 안재익 오정광 우한주 이규진 이상권 이상호 이재형 이필이 임창의 전현우 정병기 조성영 최상도 최영수 최태섭 최필조 한형식

◇동기회 당구대회 찬조: 이필이 110만원 황상철 30만원 김규선 김용진 맹경태 손진규 안재익 이창(이상 각 20만원) 객창우 김동기 김상백 김정현 김종백 김종일 김철원 김한교 김호영 김호욱 김호진 박영찬 박재영 성귀호 오정광 우한주 이상권 이상호 이재형 전현우 정병기 최상도 최재혁 한형식(이상 각 10만원) 이규진 고급화장품 10세트 10만원 총동창회장배단체전우승팀 40만원

37회 동기회 : 송년회



11월 29일(수) 저녁 신동아회센터에서 29명의 동기들이 모여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허부남 동기회장은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행사가 동기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황리에 마무리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말을 하였고 앞으로도 우애있는 동기회가 되자고 역설하였다.

43회 십일인회 = 야구부사랑



<기사 22면에 계속>

동기회 및 동오회

〈기사 21면에 이어〉

43회 동기들로 구성된 모교야구후원회인 십일인회는 11월 3일(금)따사로운 가을 날씨에 작년 이어 더스타뷔페에서 경남고 야구부 후배들을 초청하여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다.

서원택 회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박상순 동문이 불참해서 미안하다며 롯데상품권 50만원을 찬조한 것을 43회 차기 동기회장 류법권 동문이 감독과 코치진에게 선물했다.

감독 코치진과 같이 식사하면서 야구부 애로사항, 내년도 전력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리를 마쳤다.

모임에 참석한 야구부원들은 선배들의 후원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훈련하여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하였고, 십일인회 회원들은 계속하여 야구부 후배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십일인회 멤버 : 김대영 김대훈 김상형 김영휘 류법권 마성준 박상순 서원택 이영철 이학노 최영동

55회 동기회 = 가족운동회



10월 14일(토) 경남중학교 운동장에서 화창한 날씨 속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운동회를 개최하였다. 국민MC 김경진(44회) 동문의 사회로 시작한 운동회는 재치있는 진행으로 아무런 사고없이 시종 일관 웃음꽃 넘치는 시간이었다.

학창시절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고 뛰고 구르며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웃고 즐기는 모습들을 보며 행복한 마음이 들었고 동기들이 함께 있어 든든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모두 들의 바람으로 자리잡았다.

◇참석자 : 김경근(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김경진(44) KN1942방송국장, 안재영(57회) 동기회장 외 2명
-55회 참석자 : 강문성(배우자, 자녀 2) 고윤성(배우자, 자녀 2) 김대성(배우자, 자녀 2) 김정현(배우자, 자녀 3) 김태련(배우자, 자녀 2) 김현달(배우자, 자녀 1) 김현중(배우자, 자녀 2) 박기흥(배우자, 자녀 1) 박상인(배우자, 자녀 2) 신동현(배우자, 자녀 1) 신용국(자녀 1) 오광운 이대호(배우자, 자녀 2) 이육한(배우자, 자녀 2) 이항림(배우자, 자녀 1) 장지훈 장현준(배우자, 자녀 1) 전민기(배우자, 자녀 2) 한재호(배우자, 자녀 3) 허준(자녀 2) 황시우

◇현금찬조 : 총동창회 20만원, 박종찬(25회) 50만원, 조용철(38회) 10만원, 정순환(39회) 10만원, 한수열(40회) 10만원, 안병규(44회) 10만원, 청마회 30만원, 강문성 50만원, 김현달 20만원, 박다니엘 10만원, 이대호 50만원, 이육한 30만원,

◇물품찬조 : 김태련 BMW 텀블러 20개, 김태현 영양제 10개+고급치약세트 20개, 김현달 텐텐+상비약, 박상인 슬라이드장난감 35개, 신용국 캐치티니 핑 스티커, 윤승환 맥주 20리터(기계와 함께), 이대

제5회 K46 회장배 Invitational 대회 개최



수, 롱기스트-서승진, 다버디-백경택, 다파-이조셉(47회), 다보기-문정기, 첫버디-최경훈(47)

◇참석자 : 강남구 김경수 김대욱 김백권 김영수 김철홍 김태영 김한국 김희택 문용성 문정기 백경

10월 20일(금) 해운대C.C에서 제5회 K46 회장배 Invitational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K46은 46회 동기회 골프 모임으로써 매월 1회 5개조 20명이 모여 정기라운딩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으로 현재 회원수 30명으로 동기회 산하 모임 중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동기회장 겸 K46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재광 동기를 중심으로 벌써 제5회째 K46 회장배 Invitational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47회 6명의 후배들이 초청 게스트로 참석했다. 후배들과 함께하는 경기여서 대회개최의 의미가 더 있었다.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회원들 덕분에 대회가 더욱 알차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대회가 5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이 동기애로 똘똘뭉친 단합의 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수상내역 : 신페리오우승- 조덕만(47회), 신페리오준우승- 오동기, 신페리오 3위- 최원석, 메달리스트- 이동주(47회), 니어리스트- 김경

택 서승진 서용택 송영주 신정일 심승규 안명기 오동기 유영탁 윤성곤 이재광 이태환 정문호 최원석 하성용(이상 46회) 김태효 이동주 이조셉 전성진 조덕만 최경훈(이상 47회)

◇찬조 : 이재광 손목시계형 거리측정기 1개 + 스탠드형 골프백 1개 + 상품권 10만원권 3매, 서승진 상품권 10만 원 +메이더씨 튀김선물세트 40개(회원전원 택배발송), 김태영 양주 1병(시바스 18년산), 하성용 국산고급 그라태 + 제토스선글라스 2개, 신정일 벤츠우산 5개 + 벤츠레이디백 2개, 김희택 와인세트 3병입 1개, 최원석 상품권 10만원권 3매, 문용성 현금 20만원, 이동수 멀치선물세트 10개, 강남구 공진단 1박스, 김철홍 이블세트 1개, 이태환 와인선물세트 1개, 문정기 상품권 10만원권 1매, 김경수 상품권 10만원권 1매, 안명기 불빅마블골프공 2더즌 + bmw우산 3개, 홍이준 고급바이주 2병, K46 어메이징크리모자 2개 + 골프공 12더즌 + 항공커버 3개 + 드라이버커버 3개 + 거리측정기커버 3개 + 비니모자(개별이니셜) 37개, 47회 현금 30만원

호 최강야구 싸인볼 48개, 정승윤 청정원 종합선물세트 9개, 한재호(이상 55회) 소주+맥주+생수+얼음, 장재환(56회) 커피 40잔

◇찬조 : 권우일(45회) 플랜카드, 강문성 20만원, 이대호 20만원, 이육한 20만원, 한재호 소주+물, 김현달 콜라겐 12개, 김태현 고급 치약세트 30개

55회 동기회 = 정기총회



11월 25일(토) 문현동 대구 돼지국밥집(이동현 동기 운영)에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총회를 가졌다.

동기회장 이·취임식 있었는데 신임 회장으로 강문성 동기가 선출되었고, 사무국장으로 황시우 동기가 임명되었다.

신임 강문성 동기회장은 함께 모인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 편안하게 얼굴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참석자 : 강문성 김현중 박기흥 박정민 안진영 오광운 윤승환(3-7) 윤승환(3-8) 이동규 이동현 이육한 이종원 이준호 이항림 장지훈 장현준 전민기 허준 황시우

현대차 경남고 동문회 = 12월 모임 및 정년퇴직 동문 환송회



지난 12월 6일(수) 외식명가 삼산정에서 12월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이효성(35회) 동문의 정년퇴직 환송회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감사패와 기념품, 꽃다발을 증정하였다. 이날 울산지역동창회 이현(44회) 신임사무국장이 특별히 참석하였다.

◇참석자 : 김상갑 김현범 윤병욱(이상 34회) 이효성(35회) 정성훈(38회) 진조석(39회) 유종아(40회) 정찬홍 하창목(이상 43회) 김상조 김승민 김정민 유동욱(이상 52회) 백명국(57회) 정재석 조지훈(이상 59회) 이현(44회) 울산지역동창회 신임사무국장

◇찬조 : 최일진(31회) 울산지역 동창회장 10만원, 정성훈(38회) 수정방

임우근(19회) = '영웅을 위한 음악회' 개최



임우근 동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호국문화진흥회는 국가보훈부와 공동 주최로 11월 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음악회는 피아니스트 이경숙, 리틀엔젤스,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 Jens Lindemann, Matt Catingub 등이 출연하고 한국전 참전용사와 참전국 대사 등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였다.

허구연(24회) = 제25대 KBO 총재 재선출



허구연 동문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25대 KBO 총재에 재선출되었다. KBO는 11월 22일 "총회가 18일 열린 제5차 KBO 이사회에서 총재 후보로 단독 추천된 허 총재의 서면표결을 진행했으며, 전원 찬성으로 선출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제24대 총재로 취임한 허 동문은 제25대 총재로도 선출돼 2026년 12월까지 새 임기를 수행한다. 경남고, 고려대를 졸업한 허 동문은 MBC 해설위원을 거쳐 정보통신부 토스 감독, 롯데 자이언츠와 메이저 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산하 마이너리그팀에서 코치를 지냈다. 또 KBO에서 규칙위원장, 기술위원회 부위원장, 야구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총재 고문을 맡았다. 지난해 정치택 전 총재가 사임한 뒤 총재로 취임해 한국야구 발전에 힘써왔다.

윤동섭(34회) = 제20대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선출



윤동섭 동문(현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제20대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연세대 법인이사회는 연세대 교수평의회에서 대학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공약 등의 발표 및 검증 등을 거쳐 윤 동문을 최종 낙점했다. 윤 동문은 내년 2월 총장에 취임하며, 임기는 2024년 2월부터 2028년 1월 말까지 4년이다. 윤 동문은 연세대 재단이사회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연세대학교의 미래 발전 방안과 함께, 그동안 기관의 주요 보직을 맡아 추진해 온 성과 및 강한 추진력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동문은 1987년 연세의대 졸업 후 외과학교실 교수를 거쳐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부장,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을 역임한 뒤, 2020년 8월부터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재직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간담체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작년 4월부터는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맡아 병원계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재영(41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취임



이재영 동문이 지난 9월 해양수산부 정기 인사에서 제39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에 취임했다. 이 동문은 부경대 해양학과를 졸업, 영구 웨일즈대 석사, 영구 네이피어대 박사, 2007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서 공직을 시작해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원양산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 동문은 취임식에서 "동해항이 강원지역 해양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재진(22회) = 제41회 부산산업대상 사회공헌 수상



유재진 동문(스타자동차 회장)이 제 41회 부산산업대상 사회공헌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지난 1983년 제정된 부산산업대상은 부산 지역의 경제와 상공업 발전 및 지역사회 공헌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기업인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가장 권위있는 지역 기업인상이다. 사회 공헌부문의 유 동문은 평소 지역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 인재 양성, 지역 문화 활동 등에 많은 지원을 해 오고 있다. 또한 스포츠 단체 및 문화 단체의 인재 양성과 이 단체들에 대한 후원과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희(28회) = 롯데 자이언츠 퓨처스팀 2군 감독 선임



김용희 동문(KBO 경기운영위원)이 내년 롯데 자이언츠 퓨처스팀을 이끌 2군 감독으로 선임되었다. 김 동문은 KBO리그가 출범한 1982년 롯데 자이언츠 원년 선수 출신으로 미스터 올스타 선정 등 프랜차이즈 전통을 이어간 대표 선수였다. 1989년 롯데에서 플레이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1군 타격코치를 거쳐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롯데 감독을 역임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2000), SK 와이번스(2015~2016) 1군 감독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KBO 경기운영위원으로 활동했고 2019년부터 KBO 경기운영위원장으로 일했다. 2006년 2군 감독을 끝으로 다시 롯데를 떠났다가 17년만에 친정 롯데로 돌아온 셈이다. 김 동문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 오랜 지도자 경험과 KBO 사무국에서의 행정 경험을 통해 롯데가 두꺼운 육성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동섭(36회) = 제3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서 은탑산업훈장 수상



지동섭 동문(SK온 대표이사)이 '제3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지 동문은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와 함께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에서 초고속 충전 기술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며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SK온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90% 이상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등 견고한 국내 배터리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 동문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와 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90년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에 입사한 뒤, SK루브리컨츠 대표이사,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를 역임했다. SK온이 물적 분할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SK온 초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정신(47회) = 제30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단장 선임



정신 동문(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제30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단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종원(55회) = 제53보병사단 126보병여단 2대대장 취임



이종원 동문이 제53보병사단 126보병여단 2대대장으로 취임하였다.

동창회보 광고 문의 환영
▶동창회 사무국 Tel. 051) 253-7788

요즘 어떻게

<17회>

△문정민 = 딸 은영양 12월 3일 오후 3시 서울 더라빌(구. 웨딩의 전당) 2층 토파즈홀에서 결혼 △정재근 = 모친상. 10월 19일 발인

<20회>

△강대철 = 부인상. 10월 4일 발인 △차상목 = 모친상. 10월 10일 서울성모병원(강남) 장례시장 11호실에서 발인

<23회>

△김대영 = 모친상. 11월 12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2호실에서 발인 △(故)박건준 = 아들 형우군 12월 2일(토) 낮 12시 30분 서울 브라이드 밸리 웨딩홀에서 결혼

<24회>

△박태진 = 장남 진국군 12월 2일(토) 오전 11시 힐튼호텔 경주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배종갑 = 빙모상. 10월 22일 인창병원 장례식장 502호에서 발인 △서상철 = 아들 동은군 12월 2일(토) 오후 5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예식장 5층에서 결혼 △유근모 = 모친상. 10월 22일 인창병원 장례식장 502호에서 발인 △한성대 = 아들 원상군 12월 16일(토) 오후 2시 30분 사직아시아시티 고흐홀에서 결혼

<25회>

△박세철 = 딸 10월 9일(월) 오후 2시 서울 아펠가모광화문L1층에서 결혼

<26회>

△권영인 = 장남 규한군 11월 11일(토) 오후 1시 금강국민호텔에서 결혼 △박복수 = 장남 지훈군 12월 17일(일) 오후 5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결혼 △박상호(의) = 모친상. 10월 12일 부산전문장례식장 VIP2호실에서 발인 △(故)박태룡 = 딸 지설양 11월 18일(토) 오후 2시 30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4층 로즈홀에서 결혼

<28회>

△김용석 = 딸 보리양 11월 25일 서울 논현동 마리아주 스퀘어에서 결혼 △노태욱 = 아들 진석군 11월 5일 서울 서초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결혼 △배효진 = 모친상. 10월 5일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오민석 = 빙부상. 10월 18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유영식 = 딸 지은양 10월 29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작마루에서 결혼 △황태봉 = 부친상. 9월 26일 부산 영락공원장례식장에서 발인

<30회>

△김경환 = 빙부상. 11월 27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에서 발인 △김진동 = 장남 시형군 11월 12일(일) 오후 2시 20분 여의도웨딩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박병하 = 빙모상. 11월 3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서 발인 △서강태 = 모친상. 11월 19일 부산 고신대복음병원 장례식장 301호에서 발인 △신운원 = 빙모상. 11월 27일 부산 인창병원 장례식장 302호실에서 발인 △오규환 = 딸 지현양 11월 18일(토) 오후 1시 압구정 성당 2층 대성전에서 결혼 △이영생 = 차남 성근군 11월 26일(일) 낮 12시 30분 웨딩스퀘어 강변 3층 베니르홀에서 결혼 △이재봉 = 장녀 현경양 10월 21일(토) 오후 5시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이준호 = 빙모상. 11월 26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401호실에서 발인 / 차남 병훈군 12월 9일(토) 오후 5시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 7층 컨벤션홀에서 결혼 △임규영 = 차남 10월 28일(토) 낮 12시 30분 W스퀘어 웨딩홀 3층 더에비뉴 웨딩홀에서 결혼 △조길래 = 빙부상. 10월 4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3호실에서 발인 △최인근 = 장녀 세은양 12월 9일(토) 오후 1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HL층 하모니 볼룸에서 결혼 △하성임 = 모친상. 10월 31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2층 VIP

실에서 발인

<31회>

△이상률 = 아들 12월 2일 낮 12시 서울 삼성역 그랜드힐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이석우 = 아들 10월 21일(토) 오후 2시 부산 호메르스호텔 컨벤션 3층 웨딩홀에서 결혼 △이용호 = 아들 11월 25일(토) 오후 2시 여수 히든베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이원철 = 모친상. 11월 25일 부산백병원장례식장 101호에서 발인

<33회>

△권창주 = 장남 진모군 11월 19일(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더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김종욱 = 빙부상. 9월 27일 좋은강안병원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영오 = 모친상. 10월 29일 아시아드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윤조 = 모친상. 10월 17일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이형근 = 빙모상. 10월 28일 남양주 국민병원장례식에서 발인 △황 철 = 빙부상. 10월 5일 여의도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발인

<34회>

△권병웅 = 모친상 △김종명 = 아들 지훈군 12월 2일(토) 오전 11시 30분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2F 컨벤션홀에서 결혼 △김철민 = 아들 현석군 12월 17일(일) 낮 12시 W웨딩 목화웨딩컨벤션 15층 아모르홀에서 결혼 △김태관 = 부친상. 10월 1일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6호실에서 발인 △김태하 = 딸 지윤양 12월 2일(토) 오후 1시 20분 아시아드시티웨딩홀 1층 G홀(고흐홀)에서 결혼 △김호주 = 아들 창근군 9월 23일(토) 오후 3시 더컨벤션잠실 1층 그랜드볼룸 홀에서 결혼 △이상호 = 빙모상. 10월 26일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서 발인 △이재완 = 차녀 지연양 11월 19일(일) 낮 12시 아난티 힐튼 1층 볼룸에서 결혼 △조현근 = 모친상. 10월 11일 고신대복음병원 장례식장 301호실에서 발인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김춘광(12회) = 10월 23일 작고
- ▶ 김승연(13회) = 11월 25일 작고
- ▶ 김정일(13회) = 10월 17일 작고
- ▶ 김정태(13회) = 10월 28일 작고
- ▶ 신동배(13회) = 10월 17일 작고
- ▶ 김진엽(16회) = 11월 1일 작고
- ▶ 이성기(23회) = 10월 22일 작고
- ▶ 고후영(26회) = 10월 9일 작고
- ▶ 김영옥(30회) = 11월 19일 작고

△한승우 = 부친상. 일산백병원장례식장 특 1호실에서 발인 △허윤모 = 아들 건군 11월 25일(토) 오후 2시 아펠가모 반포점 L1층에서 결혼 △황인철 = 모친상. 10월 7일 고신대복음병원장례식장 특203호실에서 발인

<36회>


△김철원 = 아들 영일군 10월 22일(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마리아주스퀘어에서 결혼 △박영찬 = 부친상. 10월 1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에서 발인 △서동천 = 아들 성준군 10월 14일(토)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마리아주스퀘어에서 결혼 △이성호 = 아들 지윤양 11월 4일(토) 11시 20분 센텀사이언스파크 웨딩홀 4층 더하우스홀에서 결혼 △지동섭 = 부친상. 11월 1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서 발인

<42회>

△김광진 = 빙부상. 11월 21일 발인 △김원주 = 빙부상. 10월 31일 발인 △황승표 = 부친상. 11월 26일 발인

<51회>

△이건우 감독, 오건진 코치가 이끄는 강서구리틀야구단이 제9회 박찬호배 전국리틀야구대회(10. 21 ~ 10. 30) 한화구장 외 4개구장에서 80개 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였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가 있는 교정 <4>

이태석 신부 동상



큰 사람이 되려고
서울로 가고
멀리 미국까지 가네
아프리카로 갈 생각은 미처 못 했네

성공을 하려고
좋은 회사 취직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성직자가 되기는 힘들었네

남에게 말하기는 쉽지만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네
마음을 주기는 더 어렵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혼자서 걸어갔네
그대 지나간 길
들꽃 무성하여라

어느 차가운 겨울 날
들꽃은 지고 하늘로 올라갔네
태양은 바람에 흩어지네

어둠을 지나 거름이 된 곳
봄 날 다시 꽃 피네
다시 피어 희망이 되네
사랑과 나눔의 봉오리 맺네

고 이태석 신부는 경남고 35회 졸업생이다. 1962년 부산 남부민동에서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난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삶바느질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간다. 경남고를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마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카톨릭 신부가 되겠다는 꿈을 키운다. 광주카톨릭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로 유학하여 2001년 사제 서품을 받는다.

사제 서품 후 그동안 결심했던 남수단 톤즈에 선교사로 부임하여 의료봉사와 구호활동에 나선다. 진료소를 만들어 하루 200~300명의 환자를 돌보았으며 아이들에게 수학과 음악을 가르친다. 어려운 이웃의 친구이자 사제, 의사, 교사로 사랑을 실천한다. 2008년 모처럼 휴가를 얻어 한국을 찾은 길에 받은 건강진단에서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짧은 투병 끝에 2010년 48세의 나이로 선종한다.

2011년 경남중고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고 이태석 동문의 고귀한 삶을 후배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신부님의 동상을 세울 것을 발의하였다. 1년간의 준비 끝에 2012년 4월 30일 개교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동상제막식이 열렸다. 덕형관 앞 늘솔길에 세워진 동상은 재학생들이 이태석 신부의 희생, 나눔, 봉사,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 '경남중고등학교 80년사' 요약)

신부님의 헌신적인 사랑에 가슴이 뭉클하다. 선배님이 경고 동문임이 자랑스롭다. 너무 짧은 인생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늦가을이다. 여름날 무성했던 나무들은 잎을 떨군다. 수북이 쌓인 낙엽은 썩어 거름이 된다. 그리고 봄이면 다시 잎이 돋고 꽃을 피운다. 자연의 순환처럼 희생, 나눔, 봉사, 사랑의 정신은 영원히 이어진다.

김철원(36회)
동창회보 편집위원

역대 총동창회장 역임 순서, 재임기간 정정

(경남중고100년사籌備위원 박종기 28회)

수십년 동안 총동창회에서 각종 형태로 발행된 책자 속에 역대 총동창회장의 기록에 오류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금년 1월에 발간, 배포되었던 “경남중고80년사”의 9~10페이지에는 제5대 총동창회장으로서 “류영열(3회)” 동문이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동창회 회원총명부 2000년판 이후부터 2022년 판까지는 “류영열(3회)” 동문이 제4대 총동창회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972년 4월 30일에 발행된 동창회보 47호와 1990년판 이전의 총동창회 회원총명부에는 “류영열(3

회)” 동문의 총동창회장 역임 기록이 없습니다.

이처럼 상이한 점에 의문을 가지고, 지난 수개월 동안 당시에 활동했고 생존해 계시는 선배들의 증언을 다각도로 청취한 결과, “**류영열(3회) 동문은 총동창회장을 역임했던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故김택수 회장 이후의 역대 총동창회장 기록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아래와 같이 역대 동창회장과 재임기간을 조사하여 오른쪽 표와 같이 정정하니 향후 각종 자료제작시에 이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임 기간	대	총동창회장
1947년 9월 ~ 1949년 8월	초대	임 채 홍(1회)
1949년 9월 ~ 1951년 8월	2대	정 도 해(1회)
1951년 9월 ~ 1955년 8월	3대	김 근 준(1회)
1955년 9월 ~ 1957년 8월	4대	김 영 삼(3회)
1957년 9월 ~ 1959년 8월	5대	박 시 태(1회)
1959년 9월 ~ 1983년 7월	6 ~ 17대	김 택 수(1회)
1984년 8월 ~ 1990년 6월	18 ~ 20대	송 두 호(3회)
1990년 7월 ~ 1994년 4월	21 ~ 22대	정 상 천(4회)
1994년 5월 ~ 1995년 4월	23대	우 명 수(5회)
1995년 5월 ~ 1998년 4월	24대	주 범 국(5회)
1998년 5월 ~ 2000년 2월	25대	정 소 영(6회)
2000년 3월 ~ 2002년 2월	26대	조 대 제(7회)
2002년 3월 ~ 2004년 2월	27대	박 동 열(8회)
2004년 3월 ~ 2006년 2월	28대	정 행 권(9회)
2006년 3월 ~ 2009년 3월	29 ~ 30대	안 강 태(11회)
2009년 4월 ~ 2011년 3월	31대	이 용 흥(19회)
2011년 4월 ~ 2013년 3월	32대	오 거 돈(21회)
2013년 4월 ~ 2015년 3월	33대	허 범 도(22회)
2015년 4월 ~ 2015년 12월	34대	박 대 동(23회)
2016년 1월 ~ 2017년 12월	35대	이 병 천(23회)
2018년 1월 ~ 2020년 12월	36 ~ 37대	박 종 찬(25회)
2021년 1월 ~ 2022년 12월	38 ~ 39대	김 대 욱(29회)
2023년 1월 ~ 현재	40대	이 종 휘(32회)

2023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총 2,190명 2023. 11. 30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83-2419-08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이종휘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선납부자 명단 (회보구독료)

- 3회 이만규 2024년
- 5회 진도영 2024년
- 7회 윤용우 임성극 2024년
- 11회 김광석 2024년, 이균우 이세영 2025년
- 12회 김진갑 2024년
- 13회 박홍표 2025년, 안성문 2029년, 이경재 2030년
- 14회 박남조 2026년, 이호근 최성웅 2024년
- 15회 김쌍열 2024년, 손부홍 2031년, 윤상준 2025년, 임영길 2032년
- 16회 박종봉 2024년

- 17회 이수창 2027년, 장호남 2024년, 정병렬 2025년
- 18회 박상욱 홍우재 2024년
- 19회 허남걸 2024년
- 20회 문시영 2024년, 최장하 2025년
- 21회 김완일 2024년
- 22회 이상협 2026년
- 23회 박재호 2028년
- 24회 노상우 2025년
- 25회 김상수 박맹우 정동운 2024년, 임창운 2051년
- 26회 민창현 심덕수 2024년, 이상원 2030년
- 27회 박치호 이민부 장인철 2024년

- 28회 구영소 김부윤 박종기 2024년, 하재근 2028년
- 29회 최문성 2024년
- 30회 강석철 2030년, 박철우 2027년, 신교선 2025년, 양문섭 2024년
- 32회 최춘호 2025년
- 33회 최응남 2030년
- 34회 정하태 2025년
- 36회 김관용 김용진B 2026년, 양호진 이 창 한형식 2024년
- 37회 서동욱 2024년, 이수환 전인수 최기영 2025년, 허부남 2026년
- 38회 권두성 2029년, 김연규 김원철 심 춘 2024년

- 40회 박훈재 2025년
- 41회 최영준 2032년
- 43회 김대영 2024년, 최용석 2025년
- 44회 임정훈 2024년
- 45회 김진수 2028년, 신상왕 2024년
- 46회 권성기 2024년
- 47회 배준수 2027년
- 50회 박종현 2028년
- 51회 반길호 2032년, 신혁휴 2025년, 신현식 2029년
- 54회 엄도용 2024년
- 55회 박두근 박신현 최익제 2024년

3회(3명) 송두호 윤태윤 이만규
 4회(4명) 김희수 양중학 장수호 정순모
 5회(6명) 김윤규 김진휴 상기중 이문기 정인조 진도영

6회(9명) 강동숙 김종철 변영수 손운수 이희문 정건웅 정경규 정덕환 정승화

7회(13명) 김갑성 김삼현 김용우 김진홍 김태배 배중현 송외득 오장은 윤용우 임성극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8회(12명) 김봉길 김상식 문창화 박재범 엄덕량 이종택 이준기 이호수 장혁표 조봉석 최재혁 홍광수

9회(11명) 김경희 김기관 김태영 박영복 서해량 신용익 안규현 윤일명 전인규 정 록 정해돈

10회(26명) 강희윤 김상규 김선동 김정학 박경수 박재경 박칠민 배길순 신규태 심영환 이계창 이근태 이상배 이승영 이윤수 이재순 이정호 임정우 장기상 전영대 정종만 조길수 조상진 조종제 최병도 하영수

11회(42명)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권병용 김광석 김옥실 김용만 김원형 김윤택 김인섭 김인호 김태호 김학수 김항곤 문정오 박관호 박성우 박창순 백금덕 서영호 서자윤 심재룡 양수택 오정광 유흥수 이강우 이계찬 이균우 이상태 이상훈 이상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운표 제정오 천근준 최동영 최성욱

12회(53명) 강부순 강창수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명희 김봉근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선일 김영보 김영수 김우성 김종일 김지희 김진갑 문준화 박문기 박상도 박영윤 박정윤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중섭 백응권 변동만 서병기 손제준 안상직 안영배 엄태섭 오세정 윤학근 이상현 이수영 이승태 이영한 이용언 이원우 이현달 임상원 장동석 장일곤 정대식 정호중 조정제 조홍래 차민도 추영재 허은도 홍두표

13회(71명) 강종원 고송구 고시준 구문광 권영계 권영재 김동호 김만철 김무조 김상치 김신부 김영호

김정균 김정일 김치득 김한규 남영기 문 창 박민보 박안남 박일웅 박종택 박홍표 배대결 배정운 서시주 서영웅 성정호 송신의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안성문 윤기갑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명진 이병경 이병한 이상문 이종달 이준범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량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덕치 정로상 정영화 정중현 제병민 조병성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영완 최태환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 훈 황일인 황정대

14회(54명) 강주신 권 명 김덕행 김덕호 김도선 김동화 김두남 김우용 김익명 김재도 김창기 김 총 김태희 김형수 김화옥 노수덕 류종일 문운용 박남조 박만인 박병선 박중철 배중현 손영목 송성달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신현호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명재 이수남 이현영 이호근 이훈일 장삼식 조기정 조광명 조규향 조정현 최낙섭 최봉현 최성웅 최종락 하문수 한규환 한수길 허 증 황원재 황중성

15회(55명)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고석기 권승부 김경일 김소현 김쌍열 김옥규 김완식 김중태 김중환 김중광 김중식 김판열 남기주 남암순 박영무 박찬호 박호가 배성훈 백승진 손부홍 신용기 안경숙 오봉석 윤상준 윤희정 이상호 이의일 이정부 이종명 이종수 이종희 이태창 임영길 장봉고 장중호 정석우 조규중 천신일 최광웅 최무길 최병우 최 욱 최원수 최태치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중덕 홍익찬 황중부

16회(58명)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광수 김광웅 김두용 김박일 김상호 김양원 김용진 김정호 김 조 김중덕 김중길 김형석 노원소 문성환 민신용 박기용 박두연 박공일 박중봉 방수근 배정희 서태복 설희순 성기식 성진호 손승방 송규정 송자문 엄종원 영광해 오형철 유영명 윤희주 이경환 이길홍 이무근 이방소 이양근 이종철 이청원 임승언 정우광 정일성 조길우 조원제 지수신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한일량 황규호

17회(52명) 감정은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동수 김상천 김용구 김용남 김준연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남궁성은 박가식 박신도 박인사 박재구 박 찬 박홍식 서정승 손성근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정아 신홍규 안국정 양성일 어윤대 오충한

윤성욱 윤수성 이건우 이세복 이수창 이형우 임우택 임정수 장길성 장응석 장호남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광우 정두호 정광부 정병렬 천용광 최성호 하영수 허진행

18회(64명) 강대원 강덕용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김경걸 김경관 김귀언 김기섭 김사권 김성건 김용기 김재창 김중철 김지호 김홍대 류종우 박건태 박대웅 박덕봉 박동오 박상욱 박선동 박 용 박용주 박용희 박종구 박종문 박준성 배세원 서부원 서재봉 서중규 설현기 손무열 손찬규 양동건 오수명 우원호 윤봉수 이충남 이형석 임채영 장기영 전기준 전병희 전영석 정구홍 정기용 조성재 천두갑 최 인 최재범 최진수 하영일 한기대 한기철 허도행 허만조 허성태 허영태 홍우재 황광건

19회(74명) 강동원 강영범 강재욱 강준권 김경우 김경재 김규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윤 김성진 김순호 김영택 김영태 김일천 김재근 김정우 김중기 김중우 김진국 김철호 김행복 노덕현 노태규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배무삼 서승성 선우일남 성낙철 성환진 손기태 손철수 신동인 신윤철 심영섭 안정모 유문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상만 이상우 이양환 이용조 이용흥 이창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흠 이준만 임우근 임채원 장성규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용식 정원찬 조성환 진수상 최병수 최상대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황태경 황태원

20회(45명) 강석근 김두영 김성룡 김성환 김세준 김영철 김일석 김종민 김한원 김형오 김화식 남경열 남기석 목일진 문성채 문시영 박용덕 박지오 배준태 백완균 백창열 손춘수 신원기 심두수 안재상 오경석 유근준 윤병규 윤우성 이영오 이종열 임세호 장춘식 전일준 정승창 조영철 조윤태 차용환 최명호 최상인 최석립 최장하 최중경 허남균 허주한

21회(72명) 강민우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욱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공기화 구분능 구현수 김기현 김남규 김동우 김부근 김상덕 김영삼 김완일 김용건 김현태 김홍근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상식 박일송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성정근 신태윤 안상갑 안승원 안재식 양병주 오태규 육화원 윤승근 이성집 이익규 이재택 이준성 이 혁 임경범

임성출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정태영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호제 진영천 차동민 최동완 최민석 최원중 최집수 최정림 최종린 탁원령 한대윤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22회(73명) 강호일 고인준 곽대홍 구자룡 금명환 김광국 김도살 김동욱 김동원 김성재 김성태 김세근 김수열A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일준 김정근 김철현 김학근 남백우 노평호 박규묘 박승목 박언표 박재구 박재상 박창섭 박홍조 배병한 배춘식 변대석 변중호 부창전 서경덕 손언모 손용섭 송승훈 심재복 안영수 오세길 유명윤 유인조 유재진 윤동원 이경상 이민성 이상협 이용규 이윤재 이춘식 장성덕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산 조장현 조홍기 최광욱 최성열 최영택 최학봉 하성일 한경규 한근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인석 황영환

23회(67명) 감인홍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동욱 김상영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영철 김익근 김정록 김주찬 김중광 김태용 김태홍 박기흠 박동현 박수갑 박재호 배중순 배준석 백승찬 백창영 서승환 손근식 송영춘 신경재 신언극 안범두 안병울 오도준 유석산 유원형 윤길원 윤병조 윤순현 윤태규 이강우 이기호 이덕남 이동성 이병찬 이상수 이수백 이승호 이영재 이윤석 이정욱 이준식 이창호 장기원 장병기 전명식 전상대 전영조 전재홍 정귀출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채현용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24회(86명) 강동우 강철흠 곽두희 구분열 구자웅 권수찬 김경남 김경호 김도현 김동운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봉용 김승택 김영만 김영민 김윤수 김은호 김인구 김정신 김학성 김한근 김헌태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문휘영 박국제 박윤성 박천호 박홍규 배종갑 변용준 서정대 서정득 성중기 손찬호 신장우 안상수 안형수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이대영 이동진 이명복 이상우 이상학 이 수 이영태 이재는 이창무 임덕철 임민호 장세호 장원서 장현동 전대현 전운우 정광윤 정명근 정수철 정영석 정용호 정윤상 조용화 조재진 조태홍 조현찬 주승환 주정권 진병건 차동렬 차한영 최동우 최승국 최우림 최원주 최원규 태창일 하재갑 한상렬 허구연 황성동 황성훈

25회(110명)

고명식 구도근 김건우 김길수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문국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영수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유환 김익수 김정학 김종국 김종윤 김중현 김진우 김창욱 김창호 김태선 박건수 박경립 박광용 박명우 박세철 박영하 박을영 박인동 박종기 박진국 박진국 박진상 박홍기 배대관 배동명 서민상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손국영 송영기 신경학 신성찬 안수영 안영복 안희석 양승욱 양시욱 예종복 오양덕 옥동훈 우상조 우진태 유용기 윤순기 윤태석 이대우 이동익 이명철 이민희 이상봉 이상화 이신화 이인구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학준 이홍성 임영대 임창운 장대락 장세훈 전섭태 정동운 정신배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대우 조병욱 조 익 조판제 좌상봉 주재걸 차인환 최병주 최재환 최차호 최차환 최태동 태명산 한준석 허영형 허택 황근태 황호선

26회(69명)

강수남 강영녕 강진구 고석훈 김광식 김기표 김두천 김민철 김상현 김영섭 김일광 김정무 김정원 김중우 김창범 김재영 김태년 김택영 김형 김호용 민창현 박경재 박권병 박동조 박상호 박오욱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재욱 서현수 성백은 성재업 성재일 손영수 손욱호 심덕수 심승택 왕정일 왕호석 이경호 이광태 이명진 이상돈 이상원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정근 이주형 이희준 임철호 장경재 장만욱 정영률 정익교 정재영 조만석 조일제 지용섭 최명해 최의수 하성봉 하원규 허진호 홍순하 홍정근 홍형택 황광수

27회(52명)

강태영 고창우 곽태홍 김강호 김광철 김근우 김명기 김병욱 김병철 김병호 김상문 김안석 김영삼 김우진 김중욱 김중하 김지연 김진명 김태우 김학희 문두찬 박규욱 박준규 박치호 반정열 배병록 배효택 백민호 변재국 서기룡 신환원 오봉인 윤종락 유지한 이민부 이성득 이요섭 이종경 이종찬 이현 장인철 장창조 전 풍 정두식 정영재 정재호 조보관 조웅수 최인성 태기섭 한상훈 한수길

28회(71명)

강현안 구영소 권기택 김관세 김만중 김명철 김부윤 김선경 김용석 김용섭 김용희 김익성 김인준 김준연 김창준 김홍국 노상천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문성룡 민교식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종기 박진화 배효진 백주연 백영호 서정환 신중현 안재홍 양동욱 오호석 오상근 유봉수 윤경섭 윤명일 이만수 이민우 이양훈 이영희 이원철 이종대 이종만 이흥오 임상규 임익성 임재덕 전광병 전선국 전진학 정두현 정백수 정영주A 정치영 정해영 조광재 조석태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욱 하재근 한기웅 한명재 한봉석 허남식 허영철 황장두

29회(68명)

강대용 강성훈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수 김기원 김대영 김대욱 김병희 김석윤 김영 김영훈 김인술 김재현 김정암 김종근 김종명 김철오 박근우 박동일 박동흙 박병률 박봉구 박상길 박인평 박창언 박희규 백성욱 변종만 사공운곤 서석철 설동일 손영보 송경문 신현수 오세용 윤석희 윤욱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상용 이승호 이승훈 이정윤 이준환 이충원 이상훈 장현경 정길 정성훈 정희용 조승제 조진수 조장열 조한욱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범수 최정만 하현태 한만수 현계성 현응열 황명근 황유명

30회(73명)

강석철 권용택 김경수 김기수 김기섭 김기업 김백수 김병기 김상직 김성복 김승대 김영일 김재일 김진영 김지영 김해근 김현태 남영호 노동춘 문장호 박규완 박성태 박원호 박재백 박정태 박종배 박철우 변윤수 서강태 서민석 신고선 신규곤 신윤원 심풍수 양문섭 오경태 옥유전 유재일 윤인태 윤종순 은현수 이명건 이병구 이성기 이성조 이수성 이용우 이원용 이종욱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호걸 이호준 이환기 인준승 장호영 장홍상 정경목 정기룡 정병호 정성원 정승진 정영호 정태환 정해석 조용업 채영재 최욱 최진근 최진권 하규양 황철민

31회(68명)

강대석 고영호 공종렬 곽종철 권해철 김광수 김시현 김영철 김정덕 김종규 김종호A 김태근 김판덕 김형수 김호연 남기태 남철우 노성현 류명석 문성일 민중현 박경수 박석두 박세환 박인정 박종호 박준열 박해성 박희압 배인환 서동균 서수교 서태고 손영태 손은정 손진기 신상하 신수열 심중식 안중수 오민일 오용환 오호철 옥치호 윤석중 이병태 이승원 장건호 장재훈 장정철 정무석 정용식 정원규 정철수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천장호 최부영 최상웅 최인목 최주홍 최해영 하명수 하학렬 한문성 홍구 홍성수

32회(43명)

강기상 기영수 김광기 김상권 김상범 김영길 김중판 김창범 김태홍 남상원 류현희 민길식 박성철 박우상 박중구 박진원 배종찬 백영태 신국선 신명환 신한국 양문성 업호선 예동해 오경명 우득현 이관우 이병준 이병훈 이상용 이성훈 이재수 이종휘 이환용 임인섭 임채균 장기호 전성환 정용운 정의주 최규열 최춘호 허정

33회(49명)

고창성 김기산 김대현 김령환 김병영 김원일 김윤성 김재도 김재선 김종만 김종인 김철 김태훈 김혁 남경태 노경호 민병현 박근보 박명진 박성병 박창완 박태중 배성수 백수현 서재영 송성림 송중현 안동문 안영훈 안찬모 예영찬 오항선 이동근 이석희 이윤조 이은우 이창훈 이형근 장정석 정아준 정영호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웅남 최환호 황경원

34회(22명)

강승기 광수균 김태하 김희영 노인선 박철웅 옥재명 윤성부 이강희 이상은 이용희 이정철 이준권 이진호 장현기 정노혁 정하태 조문국 조시형 진양호 최웅철 홍승철

35회(26명)

김관우 김길호 김우경 김우신 김재성 도창호 류인수 박동열 박창석 서석권 성규원 손수범 손태섭 안중업 안종일 윤종호 이기석 이남기 이성환 이춘기 이현수 이효성 장인화 정효영 주귀홍 최기평

36회(50명)

공진식 김관용 김규선 김덕주 김병국 김병주 김영훈 김용진B 김재호 김정현 김종백 김종오 김종일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남주진 박영준 박진용 박철중 박형출 방진영 서광원 신용덕 안재익 양호진 윤경준 이동희 이상권 이상준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범 이정영 이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창섭 임창의 정갑영 정병기 제갈재한 지동섭 차대일 최상도 최재혁 최태섭 한형식

37회(34명)

김동명 김상현 김성현 김영근 김의렬 김정수 김중휘 김준오 김형기 노태건 문진형 문희영 박용진 서동욱 소수현 송경철 유호섭 윤태환 이수환 이호진 장원익 전인수 정기섭 정재호 조상현 조성각 조현철 차기완 천웅찬 최기영 탁낙준 허부남 홍병일 황태윤

38회(38명)

강금성 곽동열 권두성 김경근 김경태 김대훈 김문철 김상수 김연규 김원철 김태호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정민 박준표 박태봉 박해도 방기대 백승운 신동훈 심춘 안길수 오승언 오중현 오희진 윤경만 이수관 이태훈 정인철 정재형 조석태 조수용 조용철 차성철 최휴경 한민득

39회(50명)

곽기영 김규용 김대중 김병기 김영부 김용태 김윤홍 김경남 김종업 김천술 김형보 김호석 남호찬 노성수 문기호 박근태 박인석 박종국 박준근 박진열 백기현 송영호 안승진 안영준 여동섭 오선호 유숙정 유인기 윤동배 윤원욱 이가용 이상학 이성태 이종욱 이준영 이태윤 장영욱 장윤혁 정순환 정연설 정영철 정우영 정진해 정호현 조용섭 천용준 최보식 하성포 하순호 허중기

40회(26명)

강창지 권귀동 김근영 김병기 김춘강 나수민 문형욱 박근성 박종재 배병훈 서정민 안경진

안성호 옥진형 우영환 윤경학 이강욱 이기 이병완 이상백 이정삼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최치연 한수열

41회(32명)

강병오 강석희 강훈 김동원 김봉준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A 김인수B 김정태 김형률 류지섭 박상환 박정기 박정기 백창봉 성중훈 성찬기 안광근 이경호 이광희 이양걸 임병호 장윤호 전삼록 정필상 천성원 최영준 한정호 한창희 허중윤 황정후

42회(18명)

강인호 고장석 곽창우 김광철 김동수 김원주 김재용 김태구 남화정 문지성 박동식 성창욱 신동복 신봉준 안정일 정용중 정훈준 제정환

43회(24명)

강병규 강택용 고두병 구명진 김남수 김대영 김신현 김중식 김진수 김태형 문기덕 문영찬 박경곤 서원택 윤성진 이상현 이상춘 이용상 장병철 전순표 정효범 최동환 최용석 허재원

44회(19명)

김성준 김성훈 김찬홍 김해근 배봉건 안성만 윤상훈 이동렬 이부교 이승철 이창용 임정훈 전광열 조영호 조창현 최현덕 탁정환 한수성 황인주

45회(50명)

강동호 구자삼 구대욱 권우일 김경수 김동규 김동욱 김병환 김상수 김성준 김용성 김중현 김진수 김찬수 김한호 김창균 김태규 김현철 김현호 나성태 박웅 박종호 박진수 박진영 박진환 박훈식 손창오 신상왕 신상호 양현욱 오문찬 오승현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이동희 정상희 정일근 정중훈 조창래 조태성 주형기 진상영 차명환 최상배 최재근 최재영 최지우 하인수 황귀웅

46회(45명)

강남구 강성백 구경민 권성기 권용진 권진근 권태윤 김경수 김규태 김대욱 김동희 김백권 김부규 김영수 김철홍 김태영 김태준 김희택 맹기흥 문용섭 문정기 박문현 박정석 백경택 서승진 서용택 신정일 안명기 양수성 오동기 오영훈 유영택 윤경한 윤성근 이경승 이동수 이성민 이재광 이태환 장윤성 정문호 정병노 최원석 하성용 홍이준

47회(12명)

감기환 강백중 고달우 김동휘 김영진 김하윤 배준수 이기문 이승택 정민호 정신 최경훈

48회(10명)

권유찬 권태현 김정훈 김중철 김주현 김춘호 김충진 김태균 이동재 차원일

49회(5명)

이충현 장민건 정일권 조영철 최진영

50회(7명)

강봉규 김유진 박종현 서석진 안기범 이상준 이승현

51회(16명)

강승호 구민석 김기호 김동주 김명태 박보순 박성주 반길호 신혁효 신현식 오성진 유상일 이건영 이덕 이지모 정유석

52회(23명)

강영철 구순모 김명중 김민수 김상근 김성화 김지운 김현진 류상원 박상현 변의현 유중갑 이경원 이도경 이상은 이신현 정상중 정철우 정현철 최형주 한중현 허근영 허홍만

53회(10명)

김문건 김삼욱 문희규 박현근 백홍상 송승윤 송승준 전세일 한동인 황종민

54회(6명)

고지현 김승택 신정우 엄도용 이재진 이재필

55회(84명)

강경동 강문성 고유성 권세호 김근주 김대성 김대연 김대진 김동민 김동현 김시정 김정현 김태련 김태현 김팔경 김현달 김현중 김형식 명종호 박기흥 박다니엘 박두근 박범희 박상인 박성호 박신현 박정민 박찬우 백광일 변주환 서부건 서진우 송정환 신동현 신민길 신용국 안준형 안진영 양세동 윤승환 이대호 이도경 이도규 이동욱 이동주 이동현 이문원 이상윤 이영훈 이우한 이종원 이혜민 이항림 임인철 장민 장병후 장우권 장지훈 장현준 전대근 전민기 정규진 정균찬 정보영 정승윤 정철규 제갈문 조윤효 조재영 조중호 조현민 진성후 최범준 최상국 최성원 최유성 최익제 최지훈 최흔 하치수 한재호 허준 황보영 황시우

56회(11명)

강호성 김대남 김성현 김형근 손정현 오신욱 이승민 임동섭 장재환 정경환 천두만

57회(1명) 안재영

58회(2명) 김현윤 정혁

59회(1명) 김성수

60회(2명) 권재욱 이명휘

65회(1명) 이정조

66회(3명) 권덕형 김시준 성범석

67회(3명) 김진현 전명재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79회(1명) 김민규

기수 & 이름 확인불명 4명

2023년 구독료 납부현황

2023년 11월 30일 현재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1	0	0	0%	20	60	45	75%	39	63	50	79%
2	0	0	0%	21	88	72	82%	40	42	26	62%
3	4	3	75%	22	84	73	87%	41	34	32	94%
4	6	4	67%	23	84	67	80%	42	29	18	62%
5	11	6	55%	24	100	86	86%	43	41	24	59%
6	13	9	69%	25	142	110	77%	44	41	19	46%
7	17	13	76%	26	94	69	73%	45	50	50	100%
8	15	12	80%	27	61	52	85%	46	53	45	85%
9	14	11	79%	28	82	71	87%	47	28	12	43%
10	31	26	84%	29	87	68	78%	48	11	10	91%
11	54	42	78%	30	90	73	81%	49	18	5	28%
12	68	53	78%	31	80	68	85%	50	46	7	15%
13	81	71	88%	32	62	43	69%	51	101	16	16%
14	62	54	87%	33	58	49	84%	52	124	23	19%
15	62	55	89%	34	32	22	69%	53	40	10	25%
16	92	58	63%	35	41	26	63%	54	83	6	7%
17	57	52	91%	36	62	50	81%	55	84	84	100%
18	108	64	59%	37	38	34	89%	56	52	11	21%
19	90	74	82%	38	44	38	86%	57	34	15	44%
소계		607명		소계		1,092명		소계		463명	
기수&이름불명		4명		목표인원		4,000명		구독료납부인원		2,190명	
총발송부수		3,148명									



365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합니다!

명지
오션시티

정형외과 치료는 부산 365하하병원

어깨·팔꿈치·무릎·허리·관절·토미존
건강검진·CT·MRI



병원장 하병호 (54회)

진 료 과

정형외과2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 한방과3

HAHA HOSPITAL

부산 명지오션시티 정형외과 수술병원



진료시간 365일 야간진료

평일: 09:00~20:00

주말/공휴일: 09:00~16:00

점심시간: 12:30~13:30



오시는 길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4로 88

365하하병원(명지동)

☎ 051-710-8899